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한 성경읽기가 소그룹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꿈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한 요건의 하나로서

드루 대학교 신학교에 제출된

전문적 논문임.

지도교수:

조병호 철학박사

김영래 철학박사

레너드 스윗 철학박사

강동구

드류대학교

매디슨, 뉴저지

2016년 5월

Copyright © 2016 Dongku Kang

All rights reserved.

ABSTRACT

The Utilization of “Tong Bible Guide” for Small Group Bible Reading: A Case Study of the Methodist Church with Vision, Gyeongsangnam-do, Korea

Dongku Kang

The Methodist Church With Vision, Gyeongsangnam-do, Korea

In the modern time, the small group which is the most important factors that led in the revival of church in Korea is becoming a phenomenon that rather hinder church revival, spirituality and personal growth. Korean church lost the appearance of the small group who revived the early Christian church and then have the nature of formal fellowship and social gatherings. Each church experience a small group’s downturn, they started trying to develop novel form of small group. Several types of small groups tried in each church, and they had their positive effect. Negative parts clearly existed as well. It means that, when each type of small group lost growth power and direction to go further. They are deteriorated methodologically and social type of small group. Furthermore, most worships or bible studies in those groups are obviously “partial, inclined and overemphasized” when they chose bible.

Those manners made believers ignorant of bible and block God’s mind of the one wrote the bible. Therefore, we cannot expect believer’s growth and maturity of their faith anymore, then of course these small groups lost the appearance of early church revival and depress.

I, the researcher, propose an alternative plan that will lessen negative effects from

various type of small group and activate small group. The accurate is bible reading. In early church, there was no various kind of small group like in the present time. There was lesson from apostle and fellowship and they were devoted. In here, apostle's lesson is bible. When small group teach bible correctly, believers will grow as people who have beautiful fellowship and faithful devotion like early church. I expect those effects and suggest an alternative proposal as historic order bible reading with Dr. ByoungHo Zoh "Tong Bible Guide".

When I apply this proposal, small group's characteristic has changed from friendly and social gathering through chatting to faith centered gathering with bible story. Believer's degree of understanding becomes deeper by reading bible following historical stream, and they can understand bible's important events, character and topics. It helps to know "God's mind". Moreover, they have quantity goal of achievement based on their previous bible reading, that this after reading is concentrated on God's mind. As a result, believers become interested in bible reading and previous small group which is very formal become joyful through bible, the God's word.

Above all, deep understanding of bible and quality knowledge within small group gives effect of raising the degree of understanding in public worship. Therefore, among various types of small group, using historical order bible reading with story guides [Tong Bible Guides] is the best biblical method which gives effect of believer's correct knowledge of bible [and raising fellowship between believers, biblical faith counsel and degree of understanding pastor's preach] by knowing God.

국문초록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한 성경읽기가 소그룹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
꿈이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강동구

꿈이 있는 교회, 경상남도

현대에 들어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교회 내 소그룹이 오히려 교회 부흥과 신자들의 영적, 인격적 성장에 저해가 되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다. 기독교 역사상 초대교회와 한국 교회 초기의 부흥하던 소그룹의 모습이 사라지고 형식적이거나 친교 단체 및 사교모임의 성격을 갖게 된 것이다. 각 교회들마다 소그룹 활동의 침체를 경험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소그룹을 개발하고 시도하기 시작했다. 개 교회에서 시도된 여러 소그룹 유형들은 저마다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었다. 또한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 있었다. 그것은 바로 각 유형들마다 성장 동력이 사라지고 소그룹의 나아갈 방향을 잃게 되었을 때 그 모임은 방법적이고, 사교적인 유형의 소그룹으로 변질된다는 점이다. 거기에 모임에서 이루어지는 예배 혹은 성경공부는 성경 선택에 있어서 지극히 ‘부분적이고 편향, 편중적인’ 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방식은 신자들을 성경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고 저자이신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에게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기대할 수 없게 되고 당연히 이러한 소그룹은 과거

부흥하던 초대교회의 모습을 잃고 침체될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자는 여러 소그룹의 유형에서 나타나는 부정적인 효과들을 지양하고 소그룹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올바른 성경읽기를 제시한다. 초대 교회에서는 오늘날과 같이 다양한 소그룹의 유형이 없었다.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가 있었고 헌신하였다. 여기서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성경이다. 소그룹에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면 초대교회와 같이 아름다운 교제와 충성된 헌신을 하는 신자들로 성장할 것이다. 이것을 기대하고 조병호박사의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한 역사순 성경읽기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를 실행 해 본 결과 소그룹에서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하여 성경읽기를 하였을 때 모임의 성격이 잡담을 통한 친교 및 사교적 모임에서 성경이야기가 주제가 되는 신앙 중심적인 모임으로 변화되는 효과가 있었다. 신자들이 성경을 역사의 흐름으로 읽음으로 이해도가 깊어졌으며,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들, 그리고 주제들을 이해하게 되니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데 도움이 되었다. 또한, 기존의 성경 읽기에서는 양적 실적에 목표를 두었지만 이후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성경을 읽게 되었다. 그로 인해 신자들은 성경 읽기에 흥미를 갖게 되었고, 형식적인 모임이었던 기존의 소그룹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즐겁게 모이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소그룹 내에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양적 지식은 공 예배 시 설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효과를 주었다. 따라서 여러 가지 소그룹 유형 중에서 신자들의 성경을 바르게 알고 그로 인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되어 신자들간의 교제 및 성경적 신앙 상담,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

는 효과가 있는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한 역사순 성경 읽기가 소그룹 활성화
를 위한 최고의 성경적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목 차

감사의 글	xii
표 목차	x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1
선행연구	7
연구의 방법	7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8
논문의 구조	8
II. 소그룹의 이해	10
소그룹에 대한 정의	10
소그룹의 성서적 이해	12
한국 초대교회에서 소그룹 활동의 긍정적 평가	17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 시도된 방법들과 단점들	19
소그룹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들	26
꿈이있는교회의 소그룹 활동.....	34
III. 통성경길라잡이의 이해	53
『통성경 길라잡이』란 무엇인가?	53
IV. 소그룹에서 『통성경길라잡이』를 활용한 성경읽기 실행	63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한 성경읽기 과정	63
상답과 설문분석	68
『통성경 길라잡이』를 통해 성경읽기가 소그룹 활동에 주는 효과 분석 .	68

V. 요약 및 결론	76
연구의 요약	76
연구의 결론	78
부록	80
참고 문헌	92

표 목차

<표1> 소그룹 활동의 유형들	6
<표 2> 감리교인 신앙 의식 조사	27
<표3> 일주일간 교인들의 교회활동(중복응답)	29
<표 4> 최근 5년간 소그룹 내 예배 때 사용된 성경본문 신구약 현황	39
<표5> 구약성경 - 모세오경	40
<표6> 구약성경 - 역사서	40
<표 7> 구약성경 - 시가서	41
<표 8> 구약성경 - 예언서	41
<표 9> 신약성경 - 복음서	42
<표10> 신약성경 - 역사서	42
<표 11> 신약성경 - 바울서신	43
<표12> 신약성경 - 공동서신	43
<표 13> 신약성경 - 예언서	44
<표 14> 최근 5년간 소그룹 내 예배 때 설교 제목으로 본 주제	44
<표 15> 설교 제목에 따른 주제별 현황	45
<표16> 최근 5년간 신구약 사용 현황	46
<표17> 모세오경	47
<표18> 2010년도 구약성경 본문 채택 현황	48
<표19> 2010년도 신약성경 본문 채택 현황	49
<표20> 구약 성경통독 순서	59
<표21>신약 성경통독 순서	60

<표 22> 20 마당 40 과 - 구약	61
<표23> 20마당 40과 - 중간사	61
<표24> 20마당 40과 - 신약	62
<표 25> 기존의 성경 읽기 방법(중복응답)	69
<표 26> 프로젝트 이후 성경 읽기 방법(중복응답)	70
<표27> 프로젝트 이후 성경에 대해 달라진 인식 조사(중복응답)	71
<표28> 소그룹 활동에 나타난 변화들	72

감사의 글

인생을 살면서 선택의 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 순간마다 좋은 길을 선택하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
의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 드립니다. 특히 드류 대학 목회학 박사 과정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이 길로 가게 하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또한 함께 걸어가며 끌어 주시고 손 잡아 일으켜 세워주신 고승모목사님, 이진석목사님, 최정규목사님께 감사 드립니다.

바다 바람에 춤을 추는 파도가 출렁이는 고향 충청도 보령을 떠난지 20여 년이 훌쩍 지나 타향에서 14년 동안 목회하면서 고향보다도 더 먼 곳에서 좋은 스승을 만날 수 있게끔 된 것은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좋은 선택이 되었습니다. 목회의 패러다임을 바꾸게 해 주신 통(通)박사 조병호교수님, 깨어난 학생을 깨워 열정으로 지도해 주신 감리교신학대학의 김영래교수님, 내러포로 사고의 틀을 깨고 새로운 눈을 뜨게 해 주신 드류 대학의 레너드 스윗 교수님을 만나 가르침을 받게 된 것은 제 인생의 큰 전환점을 되니 참으로 감사 드립니다.

목회학박사 과정을 위해 새로운 시도에 소망을 갖고 함께 도전한 꿈이 있는교회 교우들의 기도와 아끼지 않은 협력에 감사합니다. 목회하며 공부하려는 부족한 사위를 위해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도 후원을 아끼지 않으신 장모님 이춘영권사님의 기도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든든한 기둥이 되어 주셨습니다. 목회자로 헌신한다는 이유로 만아들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해

도 늘 인정해 주시는 어머니와 두 동생들에게 너무나도 빛을 졌습니다. 그리고 공부한다고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아빠의 부재를 묵묵히 감당해 준 세 딸 세인이, 지인이, 수인이. 그런 아빠임에도 불구하고 항상 웃어주고 다정하고 친근하게 다가와 위로해주고 힘을 주는 세 딸에게 고마움을 전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의 사모로, 아이들의 엄마로, 딸의 위치에서, 며느리의 자리에서, 돕는 베필로 늘 함께 해준 아내 이예순의 배려와 사랑에 이 공부를 마칠 수 있게 되었음에 모든 공을 돌리며 감사합니다.

세상 어떤 것으로도 갚을 수 없는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신 모든 분들께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넉넉히 갚아 주시는 은총이 있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2016. 5.

하나님과 독대의 공간 목양실에서

강 동 구

제 I 장

서 론

연구의 필요성

한국교회는 세계 선교 역사 가운데 비교적 짧은 기간에 눈부신 발전과 부흥을 이루었다. 이 발전과 부흥의 동력이 어느 한 가지라고 규명할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교회와 지역 사회 내의 소그룹 조직이 큰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¹ 사실 신앙공동체는 소그룹에서 그 능력의 근원을 발견해왔다. 예수님의 열두 제자가 소그룹의 역동성을 품고 신앙의 불씨를 일으켰듯이 생명의 원류는 소그룹에서 나온다고 할 수 있다.

기독교보다 약 한 세기 먼저 가톨릭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 선교하다가 큰 화를 당하였다.² 이 화를 당하게 되는 직간접적 이유는 18세기 후반 조선에 영조와 정조가 통치하던 때에 주자학의 공리공론을 비판하고, 정치, 경제, 사회의 개혁을 뒷받침할 새로운 학문 곧 실학이 연구되었다. 비판정신을 동반한 실학은 근대 지향적인 새로운 사상운동을 초래했다. 특히 일부 실학자들은 천주교의 신앙을 받아들였다.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천주교의 신앙은 정권에서 소외된 양반계층과 사회적으로 억압된 서민층 사이에서 쉽게 퍼져 나갔고, 1800년경에는 이미 수천 명의 신도들이 있었다. 이로 인해 지배층이 위협을 느끼고 억압정책을 쓰기

¹ 유동식, *정동제일교회의 역사 1885-1990*(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1992), 49.

²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I 1884-1992*(서울: KMC, 2013), 22-27.

시작했다. 기득세력들이 신진세력을 숙청하기 위해 천주교의 지도자들을 대거 처형, 유배시킨 신유박해(1801년), 후에 1만 여명으로 불어난 천주교 신도들은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며 성장, 이에 대해 보수적인 정권은 서교 탄압을 자행. 안동 김씨 순조 비를 제거하기 위해 풍양 조씨 일파가 김씨 세도를 몰아낼 구실로 친 천주교 정책을 펼친다고 기해박해(1839년). 흥선 대원군이 섭정하던 시기에 병인박해(1866년). 특히 병인(1866년)년에는 조선에서 일어난 대학살 때 미국의 제너럴 셔먼호도 평양 주민들의 공격을 받고 불타버린 사건이 일어났다. 미국은 이에 대한 책임을 조선에 물어 1882년 맺어진 한미조약에 의하여 미국 선교사들이 조선에 살 수 있게 되었다.³ 그렇지만 조선인을 대상으로는 종교 활동 및 선교를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조선에 머물고 있던 선교사들은 적당한 때를 기다리면서 선교보다는 의료선교와 교육선교 같은 사회봉사를 앞세워 우리나라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었다.⁴ 그 후 그들을 초청하여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성경공부를 하고 기도회를 열었다. 이렇게 모인 소그룹을 통해서 가정 단위로 예배 드리고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게 되었다. 감리교회는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은 사랑방에서, 여자들은 안방에서 매주일 세 번씩 예배를 드리고, 수요일과 금요일에는 성경공부와 기도회로 모여 믿음을 지키고 키워나갔다.” 또한 장로교회도 1898년 2월 평양 널다리 교회에서 여전도회를 시작으로 이것이 점차 구역회로 발전해 갔다.⁵ 감리교회의 선례를 따라 장로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기독교회들은 개척과 함께 각 가지 구역 소그룹 활동을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³ 최정성, *구역관리와 교회성장* (서울: 엘멘, 1999), 61.

⁴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I 1884-1992*, 57-70.

⁵ 김한옥,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실태와 발전 방안,” *신학과 실천* 12(2007.2), 13.

위치에 놓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다. 감리교회에서는 웨슬리 시대에 시작한 Class Meeting을 번역한 한자어가 바로 속회(屬會)이다. 한자로 “속(屬)”은 어디에 붙어 있다는 뜻의 엮을 “속(屬)” 사용해 속회(屬會)로 부른다. 영어로 하면 Belonging이다.⁶ 다른 교단에서는 구역(區域)으로 칭하게 되었다.

이러한 소그룹은 예배를 드리는 것뿐 만 아니라 성도의 교제, 신앙상담, 공과지도를 통한 성경지식, 신앙지식과 상식이 함양됨으로 신앙생활의 기본기를 갖추게 하였고, 삶을 나누고, 봉사하며, 이웃을 돌보고 심방하고, 중보기도하며, 전도가 되는 곳이었다. 이렇게 신앙적이고, 유기적이었던 소그룹들이 점차 교회 성장에 따라 교회가 대형화, 제도화가 되면서 생산적 소그룹이 관리적 소그룹으로 변하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첫째로, 산업혁명을 통해서 각 기업들 마다 높은 생산성을 얻기 위해 위계질서와 피라미드형 권력구조가 필요한 기업 경영 방법이 제도적인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다는데 많은 이들이 동의 한다. 즉 기업의 “경영”(management)과 “통제”(control)가 교회와 소그룹으로 들어와 초대교회와는 다른 모양을 갖게 된 것이다. 이러한 소그룹에서 구성원들은 교회의 각 조직에서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고 특정한 임무를 맡을 수 있도록 기능적 구조를 갖추게 되었고.⁷ 그로 인해 소그룹의 역할은 한국 선교 초기의 성장과 성숙은 지양되고 관리적인 기능을 부각 되게 된다. 여의도순복음교회를 보아도 조용기목사는 교회 내의 소그룹 조직인 구역의 중요한 역할 세 가지를 말하고 있다. “첫째, 구역은 가정 같은 분위기 속에서 구성원들이 서로 사랑을 만들고 나눈다. 둘째, 구역은 담임목사의 목회사역을 위임 받아 집행한다. 셋째, 구역은 구성원들이 서로

⁶ 김철한, *교회 속장 세우기* (서울: KMC, 2010), 26.

⁷ Gareth Weldon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김선일 역,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서울: SFC출판부, 2007), 15.

섬기고 나눌 수 있는 봉사의 현장이다.”⁸ 대형교회의 소그룹의 역할을 살펴보아도 생산적 기능보다는 관계 중심으로 구성원을 관리 및 교회 조직의 유지 기능이 중점인 것을 알 수가 있다.

신앙적이고, 유기적이었던 소그룹들이 점차 교회 성장에 따라 교회가 대형화, 제도화가 되면서 생산적 소그룹이 관리적 소그룹으로 변하게 된 이유 그 둘째는 한국 교회의 독특한 현상이기도 한 “첫째, 한국교회는 너무 자주 대중 집회를 갖는다. 둘째, 교회가 제도화 되었다. 셋째, 한국교회는 부흥집회를 목회의 수단으로 삼는다. 넷째, 목사들이 설교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 한다는 것이다.”⁹ 초대 한국 교회의 부흥은 대중 집회나 교역자 중심으로 한 성장이 아니었다. 오히려 교회 내의 소그룹의 성장으로 평신도들의 역할과 기능이 확대되면서 나타난 결과가 바로 교회 부흥과 성장이라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각 교회마다 관리적 소그룹 활동에서 평신도를 제자로 훈련시키고, 사명감을 고취시켜 교회 각 기관과 소그룹에 적재적소 배치시켜 생산적 소그룹으로 변화 시키는 일에 많은 집중해야 한다. 실제로 그렇게 시도하고 있다.

소그룹은 장소나 시간에 구애를 받지 않는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교회 내에서 제한된 각종 교육, 영성 훈련, 교제 등을 나눌 수 있다. 이러한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소그룹을 통해 많은 교회들이 성장을 꾀하고 있는 것이다. 영국 감리교회의 역사에서 소그룹의 규칙을 몇 가지 살펴보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지키라. 특히 첫째 매주 교회에 출석하고 성만찬에 참여하라. 모든 공적인 교회 모임에 참여하라. 둘째, 원거리, 사업, 또는 질병의 이유가 아니라면 속회나

⁸ 조용기, *희망목회 45년 구역 소그룹 부흥 이야기*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⁹ 김한옥,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실태와 발전 방안,” 2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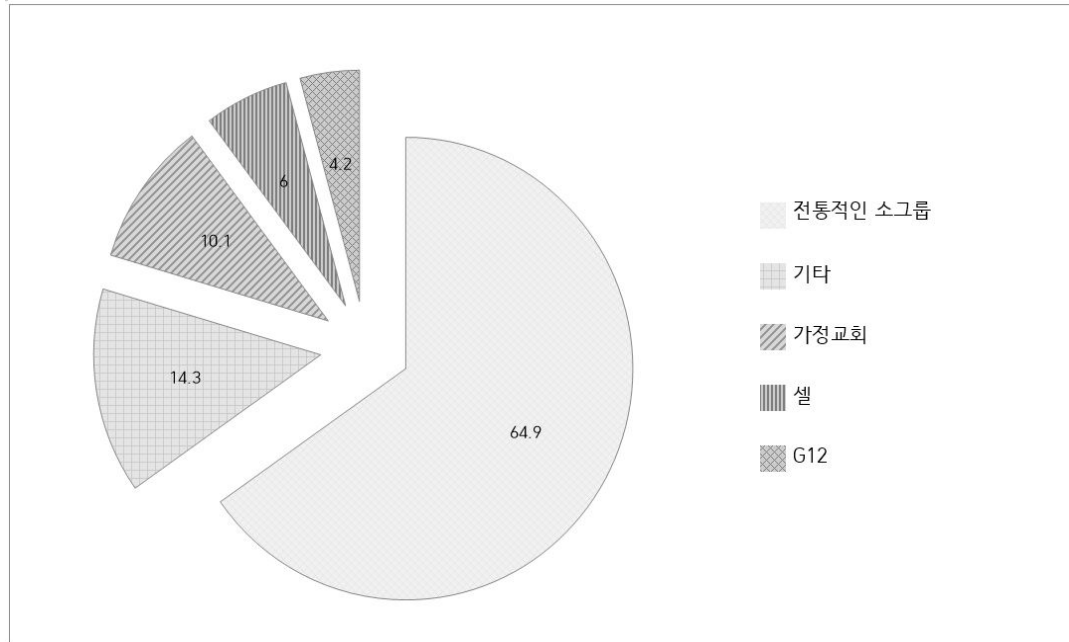
성경 공부반에 매주 참여하라. 셋째, 매일 개인 기도를 드리고, 가족 기도회를 가져라. 넷째, 틈나는 대로 성경을 읽고, 그 안에서 묵상하라. 다섯째, 매주 금요일은 금식 또는 절제의 날로 지키라.”¹⁰이다. 이는 소그룹에서 그룹원들 간의 관계적인 측면보다는 개인의 영성과 훈련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고 소그룹원들 간의 친교를 통한 관계적 활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래도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 성경 읽기를 통해 개인의 부흥이 소그룹의 부흥으로 그 부흥이 교회 부흥으로 확대되어 갔음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는 교회 내의 소그룹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 운영하고 있다. 그 소그룹 활동의 유형들을 보면 64.9%의 교회가 ‘전통적인 소그룹’ 일명 감리교의 ‘속회’, 장로교의 ‘구역’을 운영하고 있으며 ‘기타’라는 응답이 14.3%이며, 다음으로 ‘가정교회’를 운영한다는 응답이 10.1%, 다음으로 ‘셀 D12’ (6%), G12(4.2%)로 조사되고 있다.¹¹

¹⁰ 김흥기, *감리교회사-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웨슬리에서 아펜젤러까지(1725-1885)* (서울: KMC, 2013), 250.

¹¹ 조홍래, “한국교회 구역운영의 실증적 분석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총신목회전문대학원, 2007), 106.

<표1> 소그룹 활동의 유형들



그러나 현재 한국교회는 부흥과 성장이 멈춰있는 상태이며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더 이상 성장이 아니라 정체 혹은 감소 현상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일부 한국교회는 기존의 소그룹에 다양한 유형의 활동들을 접목하거나 전환을 시도하여 변화를 꾀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소 현상에서 성장세로 돌아서지 않는 것은 각 교회들마다 성장과 부흥의 한 몫을 담당했던 소그룹 활동들이 여러 유형의 활동들로 전환해 보아도 저마다 한계점에 직면하고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다. 지금의 여러 가지 유형의 소그룹 활동을 통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훈련으로는 부흥의 동력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여러 유형들의 소그룹 활동들에 대해 장단점을 연구하고 둘째, 본 교회의 소그룹 활동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장단점을

파악하고, 기존의 활동을 성경읽기로 전환하되 조병호박사의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한 성경 읽기를 통해 소그룹에 미치는 효과와 그로 인한 성도들의 성장과 교회 부흥의 연관성을 연구하여 각 교회마다 소그룹을 활성화하고 이로 인해 교회 부흥의 결과를 이끌어 낼 대안을 찾고자 한다.

선행연구

지금까지 소그룹에 대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있다. 대부분의 연구가 소그룹 활동에 대한 실태의 비교연구들을 통해 교회 성장 및 발전 방향으로 접근을 많이 하였다. 대표적인 소그룹 형태에는 전통구역, 가정목장, 제자훈련, 셀, G12 등이다. 이렇게 교회 내의 소그룹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이 한국 교회에 들어와 있다. 저마다 성경적, 신학적, 교회사적 근거를 제시하며 교회 부흥과 성장을 이루기 위한 장점을 소개하고 이를 개 교회에 받아 접목할 것을 설득을 하고 있다. 하지만, 구약·신약 시대 전체에 흐르는 전통적인 소그룹 활동의 접근에는 미흡한 점이 있고 지극히 방법적이고, 관계적인 소그룹 활동인 경우들이 많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구성원들에게 방법적, 교리적, 신학적 접근이 아닌 정확하고도 재미난 이야기로 전달되어야 한다. 성경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소그룹 구성원들에게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교리, 신학, 방법들을 가르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연구의 방법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문헌연구에 의존하나, 통(Tong, 通)이란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한다. 통(Tong, 通)이란 용어는 조병호가 학술적으로 최초로 사용한

방법으로 “전체와 부분을 동시에 보는 방법”¹²이다. 즉, 통성경, 통신학적 측면에서 다루려고 한다. 『통성경 길라잡이』를 통해 성경 읽기를 소그룹 활동에 접목하였을 때의 효과를 연구하며, 드류대학교 논문 스타일인 이야기(Narrative) 식으로 접근을 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이 논문이 다루고자 하는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는 기본적으로 통성경 읽기를 통해 소그룹 내의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효과에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둘째, 이 연구는 문헌연구 방법에 의존하되, 소그룹 활동에 대한 제도적, 방법적인 시도를 지양하고 통(通)성경, 통(通)신학적인 관점에서 살핀다. 그러나 이쪽 분야의 연구가 거의 전무해 자료의 한계성이 있음을 밝힌다. 셋째, 현대 교회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문화강좌, 운동 및 여가취미 등 여러 가지 형태의 소그룹들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교회의 모든 소그룹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교회 전체의 성도들을 목회적 입장에서 조직한 소그룹을 그 대상으로 제한한다. 넷째, 이 연구는 경남 의령군 부림면의 꿈이있는교회 소그룹으로 제한하며, 연구기간은 “2015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논문의 구조

이 논문은 크게 4파트로 나눈다. 제 I 장에서는 이 논문의 주제와 필요성, 선행연구, 연구의 방법, 연구의 범위와 제한성, 이 논문의 구조에 대해 다룬다. 제 II 장에서는 소그룹을 이해하기 위해 소그룹의 정의와 소그룹에 관한 성서적

¹²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2), 60.

고찰을 통해 다양한 소그룹 활동들에 대한 배경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교회 내 소그룹의 활성화를 위해 시도된 여러 유형들의 활동을 조사하여 장단점을 연구하고, 꿈이있는교회 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소그룹 활동을 조명하고 문제점을 파악한다.

제Ⅲ장에서는 본 프로젝트의 핵심이 되는 『통성경 길라잡이』가 무엇인지 알아보고 실재 적용 방법에 대해 정리하며 제Ⅳ장은 프로젝트 실행 과정으로 꿈이있는교회의 소그룹에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한 통(通)성경 읽기를 실행함으로 어떠한 효과들이 있는지 조사한다.

제 II 장

소그룹의 이해

소그룹에 대한 정의

소그룹이란 영어의 “group” 의 뜻이다. 이 말은 한자로는 “단체(團體)” 라고 한다. 즉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집단을 그룹이라 하고 그 규모가 작을 때 소그룹이라고 한다. 순수 우리말로 “모임” 또는 “동아리” 라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는 “group” 보다는 “community” 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다. 왜냐하면 공동체가 개인의 정체성을 확립해주며 개인의 삶의 의미를 부여해주기 때문이다. 그래서 본 회퍼는 “공동체(community)” 를 “공동의 삶(common life)” 을 경험하기 위한 사람들 간의 움직임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말하면서 이를 “함께 하는 삶” (life together)라고 불렀다. 더불어 공동체는 개별적 인간들이 함께 모여(coming) 하나(unity)가 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com+unity).¹

감리교회에서는 웨슬리의 소그룹 운동인 밴드(Band)나 속회(Class Meeting)라는 명칭을 사용한다. 이러한 소그룹 단위의 조직은 어느 특정 교단에 국한된 형태는 아니다. 다시 말해 소그룹 단위의 조직은 웨슬리의 감리교회만의 고유 조직이 아니다. 이에 대하여 박용호는 “이미 1678년 성공회의 세인트

¹ Gareth Weldon Icenogle,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김선일 역,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16.

클레멘트 데인스교회에서 안토니 호네크가 종교신도회와 신성회(Holy Club)을 시작했고, 1700년경에는 런던에 40여 개의 신도회가 있었다. 웨슬리 부친인 사무엘 웨슬리도 1702년에 12명이 모이는 소그룹을 앵위스에서 조직했다는 기록이 있다.”²고 했다. 또한 그는 “모라비안들도 일찍부터 ‘헤르후트’에서 콰이어(Choirs)와 밴드(Band)라는 소그룹 조직으로 모이고 있었다. 소그룹 조직은 속회(Class Meeting)를 제외하고는 존 웨슬리 목사가 원조라고 할 수 없다.”³고 했다.

이렇게 각 소그룹의 명칭이나 형태는 다르다 할지라도 소그룹으로 모이는데 있어서는 몇 가지 공통점들을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한 서적에서는 아래와 같이 요약하였다.

첫째, 소그룹은 ‘의도적인’ 모임이다. 우리가 말하는 소그룹은 강요된 모임이 아니다. 새로 시작되는 소그룹 모임을 소개받은 사람이 자의로 결정하여 소그룹에 참여하는 모임을 말한다. 둘째, 소그룹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모이는 모임이다. 의사소통에는 언어적인 것과 언어 외적인 것이 있다. 통계적으로 볼 때, 모든 의사소통의 90%는 언어 외적인 관계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서로의 얼굴을 마주할 때 그리고 한 자리에 모여 앉을 때 더욱 원만한 의사소통을 이룰 수 있다. 셋째, 소그룹은 ‘3명에서 12명이 모이는 모임을 말한다. 모임의 인원이 열두 명이 넘게 되면 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렵게 된다. 넷째, 소그룹은 ‘정해진 시간’에 모이는 모임이다. 다섯째, 소그룹은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이는 모임이다. 여섯째, 소그룹은 ‘발견’을 위한 모임이다. 일곱째, 소그룹은 ‘성장’을 위한 모임이다.⁴

따라서 소그룹은 3~12명의 의도된 목적과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조직으로 개인 자의적인 결정에 따라 참여하여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정해진 시간에 모여 성장과 발전을 이루는 모임을 말한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소그룹은 하나님께

² 박용호, *존 웨슬리의 속회론* (서울: KMC, 2010), 17.

³ Ibid., 18.

⁴ 채이석, 이상화,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3), 24-25.

예배 드리고 그의 말씀을 배우고, 은혜를 나누어 간증하고, 서로 교제하며, 제자를 삼고, 증인이 되는 삶이 되도록 모이는 모임이다.

소그룹의 성서적 이해

현대에 이르러 많은 소그룹들이 그 목적에 따라 조직되어 목표를 이루어 나간다. 특히 교회 내에서의 소그룹은 교회 부흥과 성장에 바탕이 되는 조직으로서 그 역할을 담당해 왔다. 많은 소그룹의 명칭과 형태가 있다 하더라도 소그룹의 뿌리는 성경에 근거하고 있다. 성경에 “소그룹” (Small Group)이라는 단어는 직접적으로 언급 되지는 않는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볼 수 있는 형태와 활동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구약성경에서는 소그룹 활동에 대해 명확한 자료가 부족하다. 다만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25)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으매 (26)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⁵에서와 같이 조직화된 소그룹을 형성 했음을 알 수 있다.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12명을 제자로 부르셔서 소그룹을 형성하셨다. 그들을 가르치시고, 부르신 목적에 따라 보내어 일을 하게 하셨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열둘을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⁶ 특이한 점은 12제자들이 더

⁵ 출18:24-26.

⁶ 막3:13-14.

작은 그룹으로도 활동했다는 점이다.⁷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기록된 열두 제자 명단을 보면 항상 세 개의 더 작은 그룹을 보여준다. 첫 번째 소그룹은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이고, 두 번째 소그룹은 ‘빌립, 바돌로매, 도마, 마태’ 이며, 세 번째 소그룹은 ‘야고보, 다대오, 시몬, 가롯유다’ 이라는 점이다. 중간에 순서가 바뀔지라도 항상 세 그룹의 머리는 변함없이 ‘베드로, 빌립, 야고보’ 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즉 예수님은 열두 명의 제자도 네 명씩 세 개의 소그룹으로 나누시고 베드로, 빌립, 야고보를 각 소그룹의 리더로 세우셨다.”⁸는 것이다. 열두 제자들이 매번 그리고 정확하게 3~4명으로 작은 소그룹을 이루어 활동했다는 근거가 성경에 그리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몇몇 성구들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더 작은 소그룹으로도 활동하였음을 충분히 뒷받침 하고 있다.⁹

또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 그룹들에게 임무를 맡기셨고 “(18)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¹⁰ 그리고, 그에 따른 전략도 주셨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¹¹,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⁷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34.

⁸ 이성희, *미래목회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119-120.

⁹ 마10:1-4, 막3:16-18, 눅6:12-14, 행1:12-13, 참조.

¹⁰ 마28:18-20.

¹¹ 행1:4.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¹² 즉,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증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 가까운 곳에서부터 먼 곳으로 제자 삼아 선교하라는 전략을 세워 주시기도 하셨다.

예수의 부활 사건 이후에도 사도들은 독단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그룹을 이루어 서로 도우면서 활동 했다. “(12)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¹³

사도들뿐 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사건 이후 신자들은 가정 내에 생성된 가정교회를 이루었다. 가정이라고 하는 특성상 많은 무리가 모일 수 없는 점을 감안 하면 가정 내에서 소규모로 모이는 군중들로 교회가 이루어진다. 초대교회에 있었던 가정교회의 증거로 빈센트 브래닉은 4개의 성구를 들어 말한다.¹⁴

(고전16:19)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문안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문안하고
(롬16:3, 5)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롬16:5)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몬2) 바울사역 말기 옥중에서 그의 친구 빌레몬에게 편지: 빌레몬과 그의

¹² 행1:8.

¹³ 행1:12-14.

¹⁴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40에서 재인용.

아내 압비아, 그들의 아들로 보이는 아킵보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게 문안하였다
(골4:15)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늬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초대 가정교회의 생성 가운데 특이한 점은 바로 사도나 장로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브래닉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 이미 시작된 이후에
지도자들이 부임했거나 섬기기를 시작한 것”¹⁵으로 보고 있다. 또한 가정교회
개척자이며 교회 생활 컨퍼런스 강사로 활동 중인 프랭크 바이올라는 “복수의
감독들이 교회 안에 세워지기 시작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가 개척된 지 적어도
14년이 지나고 나서부터였다”고 말하고 그 근거로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¹⁶로 들고 있다. 또한 그는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¹⁷를 통해
갈라디아 지방에서 4개 교회를 개척하고 난 후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 장로들을
세웠다고 보았다.¹⁸ 즉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소그룹을 이루며 개척 되었고,
소그룹원들이 자생적으로 모여 “믿는 사람들이 물건을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는”¹⁹ 부흥의 중심이었다. 그룹원들 중에 따로 구별되거나
선출된 지도자는 없었으며, 후에 필요에 따라서 집사와 장로가 세워지거나 파견

¹⁵ Ibid.

¹⁶ 행11:30.

¹⁷ 행14:23

¹⁸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41에서 재인용.

¹⁹ 행2:44-47.

되었다. 바울은 그의 선교여행을 통해서 개척된 교회를 방문한 기록 등을 볼 때 가정교회에서는 목회자나 특별히 세운 지도자 없는 소그룹을 이루고 있었으며 이는 신약성경 나타난 전형적인 소그룹의 모형으로 이 형태가 바로 성경적 소그룹이라 할 수 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이는 가정교회였다. 초대교회는 신자들에게 헌신하며 자신의 집을 내어준 가정에 모여 시작되었다. 많은 가정집들이 모임장소로 자신의 집을 모이기 용이하도록 개조하기도 하였다.²⁰ 비록 유대교도들의 위협은 있었지만 비교적 로마 제국 안에서 자유롭게 가정에서 모였다. 그러나 A.D.64년 7월 18일부터 19일까지 이틀에 걸쳐 일어난 로마의 대화재 사건의 범인으로 기독교인들로 지목 되면서²¹ 기독교인들은 로마의 네로 황제로부터 본격적인 박해를 받게 되었다. 공동서신은 A.D.64년 로마의 대화재 사건 이후 로마 제국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박해하기 시작하면서 초기 기독교의 위기 가운데 기록된 초기 기독교 지도자들의 편지이다. 유대교의 방해를 넘어 로마 제국의 박해는 초기 기독교 지도자 200여 명의 순교로부터 시작하여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지키기 힘들 수준까지 그 강도가 극심했다.²² 그래서 신자들에게는 소규모의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장소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대해 존 포스터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²³

로마제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계속적으로 가정에서 모이기를 힘썼다. 다른 종교들은 자신들의 신전이 있었고, 유대인들도 회당이 있었지만, 기독교인들은

²⁰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45에서 재인용.

²¹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6), 340.

²² 조병호, *역사순 48시간 성경통독 가이드북* (서울: 통독원, 2013), 135.

²³ John Foster, *새롭게 조명된 초대교회의 역사*, 심창섭, 최은수 역 (서울: 웨스트민스터 출판부, 1998), 33-34.

약간 새로운 장소를 사용했다. 기독교인들은 정부의 공인을 받지 못했고 도리어 의심받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였다. 어떤 곳에서 기독교인들은 무덤으로 쓸 땅을 소유하기도 했다. 제국 내에서 무덤으로 사용할 땅을 보호하기 위해 사람들이 모임을 결성하는 것이 관례화 되어있었으며, 기독교인들로 구성된 그런 ‘장례회(burial society)는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었다. 이 당시 무덤들은 기독교인들의 유일한 재산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모이는 소규모의 그룹들은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 신앙의 자유를 찾아 지하무덤으로 들어 갔다.

한국 초대교회에서 소그룹 활동의 긍정적 평가

감리교회에서 시작된 소그룹 활동인 속회는 한국교회에서 ‘구역’이라는 명칭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1742년 2월 15일 브리스틀에서 처음 속회가 시작되고, 런던에서는 3월 25일에 시작된 속회²⁴가 1798년에 이르러 조사한 통계에 따르면, 영국에서 웨슬리 감리교회의 성도 수가 101,712명에 이를 때 이를 조직적으로 이끌어 준 속회가 149개가 있었다고 말한다.²⁵ 그만큼 감리교회의 부흥은 교회 내의 소그룹 활동인 속회와 구분 지어 생각할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에 감리교회는 교회 내의 소그룹을 지금도 속회라고 칭한다. 그렇지만 장로교회를 비롯한 다른 교파에서는 구역이라 부른다. 속회보다 구역이라는 명칭이 널리 확산된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근거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추정해보자면 교회가 거주지를 중심으로 교인들을 소그룹으로 묶어 모듬화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다고 본다. 과거 교통 및 이동성이 원활하지 못했던 시기의 한국 초대교회에서는 거리적으로 근접한 교인들끼리 소그룹을 짓는 것이 어찌면 당연했을 것이다. 가까운 거리에서 모이기에

²⁴ 김철한, *교회 속장 세우기*, 34.

²⁵ 박용호, *존 웨슬리의 속회론*, 15.

수월했던 성도들이 소그룹을 통해 모여 성도의 교제와 신앙생활의 상호 협력 및 보완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묶인 소그룹은 ‘교회 안에 있는 작은 교회’이며, 교회의 ‘신경’, ‘세포’, ‘혈관’ 이라고 불리기까지 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소그룹은 교회조직의 기본단위가 되었고,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하부구조였다.²⁶ 이러한 교회 내의 조직은 교회가 대형화 될수록 성도의 교제와 목회적인 돌봄 그리고 서로 섬기고 나누는 일에 있어서 목회자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좋은 구조가 되었다. 목회자가 소그룹을 통해 기대하는 바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 목회자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는 교인들에게 소그룹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그룹장과 그룹원들이 협력하여 서로 돌봄으로 목회의 공백이나 누수현상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소그룹의 절대적인 기능과 효과로 인해 목회자는 소그룹을 목회의 동반자로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소그룹은 단지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만을 나누는 곳이 아니라 그 안에서 신앙상담이 이루어지고, 성경공부를 통한 성경지식, 신앙지식과 상식을 배우고, 신앙생활 및 교회생활의 기본을 배우는 곳이었다. 또한 교인들이 교제를 하고, 어려움을 겪는 이웃을 찾아가고, 서로 기도제목을 나눠 중보기도하고, 전도하는 곳이 바로 소그룹이었다. 또한 행정적 기능이 있어서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 및 교회의 모든 행정 제반 사항들이 모든 교인들에게 전달되고 교회의 행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역할도 했다.

한국교회 소그룹의 기능적인 면을 보았을 때 소그룹은 진정한 교회의 모형이었다. 이러한 소그룹의 기능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소그룹을 이끌어갈 평신도의 역할과 수준을 높여가면서 소그룹에서 생산과 재생산을 통한 교회의

²⁶ 김한옥,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실태와 발전 방안,” 15.

성장과 부흥을 이끌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교회의 소그룹은 교회를 떠받쳐온 기둥과도 같다 할 수 있다.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 시도된 방법들과 단점들

198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다. 그로 인해 각 교회를 마다 저마다의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특히 한국교회에 급속한 성장과 부흥의 한 축을 담당했던 소그룹 활동에 대해서 약점에 대한 분석과 보완을 통해 다양한 소그룹 활동들이 한국교회에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1980년대

한국 교회 소그룹 활동에 제자훈련이 접목된 것은 1970년이다. 당시에는 선교단체들이 주로 교회 밖에서 훈련하던 방법이었으나 1980년대부터 사랑의 교회를 위시하여 교회 안에서 제자훈련이 시작되었다. 이 시기에 한국교회가 대형화되는 모습에는 교회 행정과 목회가 담임목사 한 사람에게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 또한 교회가 양적으로는 부흥하지만 질적으로는 부족한 모습들을 드러내게 된다. 이때 옥한흠 목사는 당시 한국교회에 나타나는 문제점과 불안한 징조들을 보고 “첫째, 대다수의 목회자들이 대중 집회 위주로 목회하면서 날로 성장하는 교세 확장의 중심의 교회. 둘째, 교세가 확장되어가는 양적 성장 속에 교인들이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무능한 모습. 셋째, 교인들의 삶을 변화되지 않고 신앙적인 가치관도 정립하지 못하는 당시 한국교회”²⁷를 보면서 고민하였다. 즉 한국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은 각자의 생활에서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했고,

²⁷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87), 24.

거룩함과 신실함 및 도덕성에 있어서도 불신자들과 차별을 보이지 못했던 것이다. 그 원인으로 교리만 있고 복음이 결여, 예배만 있고 양육이 없고, 행사만 있고 비전이 없다는 것이다.²⁸ 그래서 옥한흠 목사는 “평신도 지도자를 생산할 뿐만 아니라 교회 체질을 유기적인 것으로 개선하여 신앙과 인격이 함께 성장해 가는 그리스도인을 세우는데 그 목적”²⁹을 두고 시도한 방법이 바로 제자훈련인 것이다.

혹자는 제자훈련의 출현은 지금까지 큰 역할을 해왔던 구역 또는 속회의 기능에 한계가 왔음을 보여주는 현상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반드시 구역과 속회의 결함이 제자훈련의 성공과 직결된다고 볼 수만은 없다. 어쩌면 사회와 문화 그리고 세대의 변화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다. 여기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 형태의 차이에 상관없이 소그룹 단위의 활동이 교회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핵심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제자훈련을 실시한 사랑의 교회는 많은 성장을 이루게 되었고 그로 인해 많은 국내외의 교회들이 도전을 받고 제자훈련을 벤치마킹하여 좋은 결실을 거두었다. 그 결실에 대해 한 연구 논문에서 조사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가 얻은 유익이 ‘질적성장’ 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제자훈련 실시 교회 중 46.1%, 제자훈련을 3년 이상 실시한 교회에서는 51%, 제자훈련을 5년 이상 실시한 교회에서는 55.6%를 차지하여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에 제자훈련을 통해 교회가 얻은 유익이 ‘외적 성장’ 이라고 응답한 교회는 전체 제자훈련을 실시한 교회 중 7.1%, 3년 이상 실시한 교회가 6.4%, 5년 이상 실시한 교회가 5.6%로 줄고 있음을 볼 수 있다.³⁰

제자훈련을 개 교회에 바르게 적용하여 성도들을 양육 훈련시킨다면 분명

²⁸ 옥한흠, *제자훈련 열정30년 그 뒤안길의 이야기* (서울: 두란노, 1998), 30.

²⁹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9), 244.

³⁰ 최선화, “한국교회의 평신도 제자훈련의 역사 고찰과 전망,”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2005), 48.

양적, 질적으로 성장하는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 제자훈련을 장기간 실시할수록 외적 성장보다는 교회의 질적 성장을 이루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자 훈련의 한계는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한 그 이면에는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철저한 헌신이 있어야만 한다는 점이다. 이는 곧 평신도 사역자나 헌신 봉사자가 없다면 제자 훈련 자체를 시도할 수 없다는 점이다. 또한 제자훈련을 개 교회에 접목하고자 하여도 특정 교회 이외에는 제자 훈련 중심의 교회가 소수이기 때문에 제자훈련이 확대되거나 한국교회 소그룹에서 일반화되기 어렵다는 약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제자훈련을 실행하고 있는 소수 몇몇 교회를 제외하고는 크게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제자훈련을 통해 세워진 평신도 사역자들에게서 헌신의 지속성이 떨어지는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보완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1990년대 이후

199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교회 소그룹은 새로운 형태의 활동들이 출현하게 된다. 가장 관심은 ‘셀’ (cell). ‘셀 교회’, 혹은 ‘셀 목회’ 라고도 하는 이 새로운 형태의 소그룹은 한국교회의 소그룹이 수출되었다가 외국에서 수정 보완되어 다시 들어오게 된 것이다.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조용기목사 저서 『성공적인 구역조직』이라는 책을 영어로 번역 출판할 때 “*Successful home cellgroup*”³¹이란 제목을 발간하면서 처음 사용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한국교회에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형태의 소그룹 활동임에도 불구하고 큰 반향을 일으킨

³¹ 문기철, “소그룹 목회 비교연구를 통한 현대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2), 14.

이유는 그 동안 한국 교회가 교회의 조직과 목회의 기본이 되었던 소그룹을 등한시하고 그 기능을 변질 시켰던 부분들을 보완 한 형태이기 때문이다. 외국 목회자 및 선교사들은 한국 교회의 소그룹을 배워갔고 자신의 교회에 적용하면서 소그룹 활동에 있어서 부족했던 즉 한국교회의 소그룹의 활동에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 놓쳤던 부분들과 반성해야 할 부분들을 성경적인 이해와 신학적 체계를 잘 세워 다시 한국 교회에 들어와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셀 교회’, ‘G12’, ‘가정교회’는 이러한 한국 교회의 필요를 채워줄 대안으로 알려지게 되었다. 그리고는 현재 한국교회에서 다양하게 접목 시도되고 있다.

‘셀 교회’는 랄프 네이버(Ralph Neighbour Jr.) 목사의 의해 한국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그는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소그룹인 구역조직을 참고하여 미국교회에 활용 가능한 형태의 소그룹을 만들었다. 그는 “성경적인 교회의 모델”을 고민하였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변화하는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에 더 이상 적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성경적이며 신학적인 교회와 목회의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열거한 다음, 셀 그룹 교회의 구조와 생활을 자세하게 그의 저서에서 설명하고 있다. 셀 교회는 12명에서 15명의 인원이 한 그룹이 되어 5×5 형식으로 번식한다.³²

‘G12(The Government of 12)’는 셀 교회의 변형된 모습이라 하겠다. 소그룹 교회에서 대교회로 이룬 콜롬비아 보고타의 세자르 카스텔라노스(Cesar Castellanos D.)목사에 의해서 시작된 셀 교회 모델이다.³³ 세자르 목사는 개척하여 많은 교인들이 모이는 교회로 성장시켰으나 부흥이 지속되지 않자 여의도 순복음

³² Ralph Neighbour Jr, *Welcome to Your Life*, 정진우 역, *셀교회 지침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서울: NCD, 2001).

³³ 박홍래, *셀그룹셀교회* (서울: 서로사랑, 2003), 27.

교회를 수 차례 방문한 경험을 가지고 구역조직과 비슷한 소그룹을 조직하여 교회가 더욱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를 이루었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교회 교인들의 기질과 상황에 적합한 소그룹을 만들기 위해 기도하던 중에 ‘열두 명으로 시작하라’는 영적인 음성을 듣고 교회의 소그룹 조직을 열두 명이 기본단위가 되도록 변형한 소그룹 형태이다. 그로 인해 8년 만에 70개의 셀 그룹을 24,000개의 셀 그룹으로 번식시켰다. ‘G12’는 한 사람의 리더가 열두 명의 소그룹을 이끈다. 따라서 모든 교인들은 각자 자기 소그룹을 가진 리더이며 동시에 자기의 리더가 이끄는 소그룹의 구성원이 되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속 번식해 나가는 소그룹 활동이다.³⁴

‘가정교회’는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공산권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형태의 소그룹이다.³⁵ 이 가정교회의 모습은 초기 기독교 공동체처럼 일반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의 한 방식이다. 이러한 가정교회의 형성은 성도들이 받은 은혜와 신앙을 불신자들과 공유하면서 나타난다. 현재 중국과 중동지역에서 나타나는 지하교회가 가정교회의 대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다. 가정교회의 성도들은 오늘날 교회처럼 조직화, 체계화, 계층화 되지 않고 개인의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적절한 사역을 수행하게 되어 있다.³⁶ 이러한 가정교회의 특성은 현대 교회처럼 제도나 시스템이 획일화되지 않고 지역적 특색에 따라 지역민의 기질과 성품에 따라 교회의 특성에 따라 다양하게 변형되기도 하고 탄력적인 적용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서로의 다양함이 인정되는 가운데 자유로운 헌신과 충성됨으로 초대교회와 같은 공동체적인 삶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³⁴ Cesar Castellanos, *Liderazgo De'exitó a Trav'es de los 12*, 서효정 역, *G-12리더십* (서울: NCD, 2003).

³⁵ 김한옥,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실태와 발전 방안,” 20.

³⁶ Wolfgang Simson, 황진기 역, *가정교회: 침투적 교회 개척론*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4), 141.

한국교회의 부흥을 위해 여러 가지 고민한 끝 다양한 방법들이 교회 내 소그룹 활동으로 적용하였지만 다 성공스러운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다. 조직 관리의 측면에서 소그룹을 잘 편성하고 지도자를 훈련시켜 세우게 되는 전통교회의 소그룹은 목회자의 목회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을 해결해 준다. 그래서 목회자는 목회의 가장 크고 중요한 일을 구역의 편성과 구역의 지도자를 세우는데 힘을 써 왔다.³⁷ 그러나 이와 반대로 소그룹 모임을 잘못 구성하여 그룹원내에 갈등이나 신앙과 영적 상태의 차이 등이 발생하면 목회자에게 오히려 큰 고민을 줄 수 있다. 게다가 목회자의 목회 방침과 비전을 공유하지 못한 소그룹 지도자는 그 소그룹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 갈 수도 있게 된다. 목회자가 관리 위주로 편성하기 때문에 한 번 편성된 소그룹은 가급적 변경하려 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소그룹을 통해 예배와 양육과 훈련, 전도 등 각종 훈련으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목회자의 무관심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각 소그룹의 유형에 대해 빌 도냐휴는 일곱 개의 모델로 나누고 각 소그룹의 유형에 대해 요약 정리하였다.³⁸

1. 셀 모델: Ralph Neighbour, Where Do We Go From Here? 전도가 초점이다. 리더십 개발이 필수적이다. 모든 삶은 셀 안에서 이루어진다. 셀들이 모여서 더 큰 규모의 집회를 연다.
2. G12모델: Joel Comiskey, Groups of 12: Leadership Explosion. 12명으로 이루어진 그룹들은 훈련그룹이다. 셀 그룹들은 12개의 다른 그룹들을 돌본다. 최소 주 3회의 모임을 갖는다.
3. 가정교회 모델: Robert & Julia Banks, The Church Comes Home. 중앙집권에서 벗어나 분산되는 것이 열쇠다. 가족모임에 기반을 둔다. 리더십은 협조적이고 민주적이다. 어린이들도 모임에 참여한다.
4. 자유분방한 셀그룹: Ted Haggard, Colorado Springs. 단기그룹. 그룹형성의 우선적인 원리는 친분관계다. 리더십은 유동적이다.

³⁷ 송삼용, *구역장 불꽃처럼 일어나라* (서울: 브니엘출판사, 2003), 59.

³⁸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142-144에서 재인용.

참여자들이 주도한다. 5. 메타교회 모델: Carl George, The Coming Church Revolution. 돌봄의 범위를 1:10의 비율로 표현. 예비 지도자 제도를 통한 리더십 개발. 빈의자와 탄생의 기법을 사용한 재생산. 세심한 목양을 통한 성숙. 6. 주거지역 모임 모델: Randy Frazee, The Connecting Church. 공통의 목적, 주거지역, 소유를 가진 사람들로 조직된다. 교인들의 분포를 지도로 그려서 지리적으로 구역을 정한다. 자연스러운 관계를 통한 전도. 동네에 따라 구성된 구조 속에 특별히 친분관계를 가진 그룹들이 존재한다. 7. 성경공부중심모임 모델: Knute Larson, The ABF Book. 강의를 같이 들은 반에서 소그룹들이 형성된다. 우선적으로 ABF에서 공동체가 형성된다. 축하행사, 회중모임, 셀 방식이 사용되며, 셀은 필수가 아니라 권장사항이다.

세계적으로 많은 소그룹 유형들이 개발되어 필요에 따라 각 교회 별로 적용 실행하고 있다. 도냐휴가 제시한 여러 유형들 중에 한국교회에서는 셀 모델, G12 모델, 가정교회 모델, 제자 훈련, 두 날개 등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여러 유형의 소그룹 활동들은 나름대로 각자 장점을 가지고 교회 성장과 성숙이란 측면에서 공헌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모든 교회에서 동일한 유형을 실행한다고 해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각 유형에서 보여지는 저마다의 단점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 단점들을 정리하면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대부분의 소그룹 유형들의 핵심은 헌신하고 충성하는 평신도 지도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점이다. 분명 교회 안에 헌신하고 충성된 평신도 지도자 및 사역자가 세워져야 한다는 점은 교회 부흥과 성장에 있어서 분명히 필요하고 지향해야 할 부분이다. 그런 반면 세워진 소그룹 지도자의 역량이 미흡하다거나 오히려 훌륭한 리더가 세워지지 않는다면 새로운 유형의 소그룹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약점이 잠재 하게 된다. 즉, 소그룹에 세워진 지도자는 부흥과 도태라는 양날의 검이 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교회에서 목회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소그룹 내에서 그 모듬의 지도자에게 집중되는

현상으로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소그룹의 모든 활동의 중심이 지도자에게 집중되어 있으면 담임목사에게 집중되는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인 지도자의 독선을 방지할 수 없는 약점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단점들은 소그룹의 활성화를 오히려 방해는 요소가 되고 있다.

소그룹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들

한 신학대학 교수는 소그룹 목회의 문제점을 연구하면서 소그룹 목회가 한국교회에 정착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 몇 가지 이유를 밝혔다. “첫째, 한국교회는 너무 자주 대중 집회를 갖는다. 둘째, 교회가 제도화 되었다. 셋째, 한국교회는 부흥집회를 목회의 수단으로 삼는다. 넷째, 목사들이 설교에 너무 많은 시간을 사용한다.”³⁹ 이러한 주장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현재에 이르기 까지 대다수의 교회들의 목회자가 사용하는 방법들이다. 이 목회 방법에서 큰 공통점을 찾을 수 있다. 바로 소그룹 보다는 목회자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중세교회에 ‘암흑기’라 불리는 이유를 보면 “교회조직의 경직성과 성직자들의 독선이 만들어 낸 것”⁴⁰이라 말한다. 즉, 개 교회에서 모든 시스템이 담임목사에게 집중되고 그로 인해 목회자의 독선에 빠지게 되면 중세교회처럼 교회의 암흑기가 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로 인해 소그룹의 자생적인 활동보다는 경직성을 띠게 되고 그러면 당연히 소그룹 목회는 교회 내에 정착되지 못하고 도태될 수 밖에 없으며, 소그룹의 도태는 교회 부흥의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단점들을 비롯하여 소그룹 활성화를 방해하는 요소들을 몇 가지를 살펴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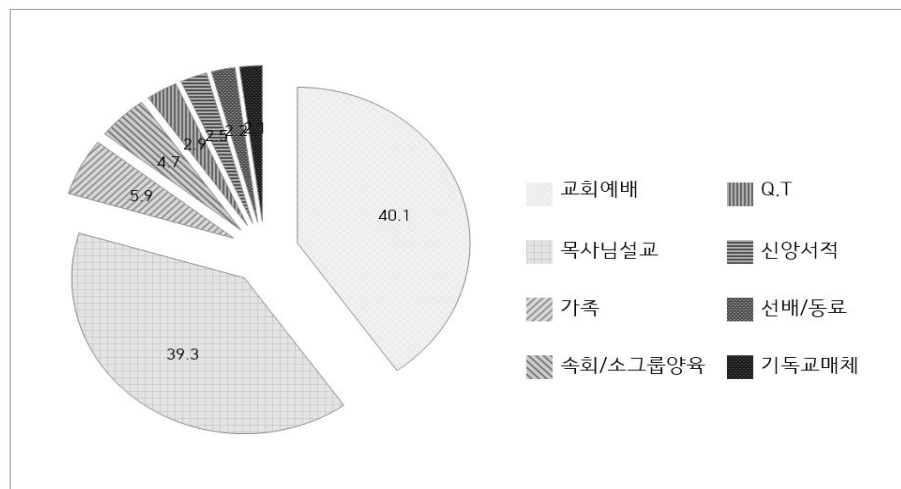
³⁹ 김한욱,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실태와 발전 방안,” 20.

⁴⁰ Ibid., 9.

잡은 대중 집회를 통한 목회자 중심의 교회

한국교회는 열심히 모이는 교회로 잘 알려져 있다. 주일예배를 비롯한 새벽기도회 등 전 교인이 공식적으로 모이는 집회만 일주일에 12회 이상이다. 거기에다가 각종 성경공부, ○○학교, 새가족반, 지도자 교육 및 각종 문화교실 등을 합하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교인은 거의 교회에서 살다시피 해야 한다. 감리교 교리와 장정 제4조 에 의하면 “교인은 교회의 공중예배(주일 낮, 오후 혹은 저녁예배, 수요일예배)는 물론 속회 및 기도회, 가정예배, 사경회와 부흥회, 그 밖의 모든 은혜 받는 집회에 참석하는 것”⁴¹이 교인의 의무로 정하고 있다.

<표2> 감리교인 신앙 의식 조사



성도들의 의식 자체에도 “감리교인 신앙 의식 조사” 에서 자신의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을 ‘교회 예배’ (40.1%)와 ‘목사님 설교’ (39.3%), 다음으로는 ‘가족’ (5.9%), ‘속회/소그룹 양육’ (4.7%), ‘QT’ (2.9%), ‘신앙서적’ (2.5%),

⁴¹ 장정편찬위원회, *교리와 장정*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감독회,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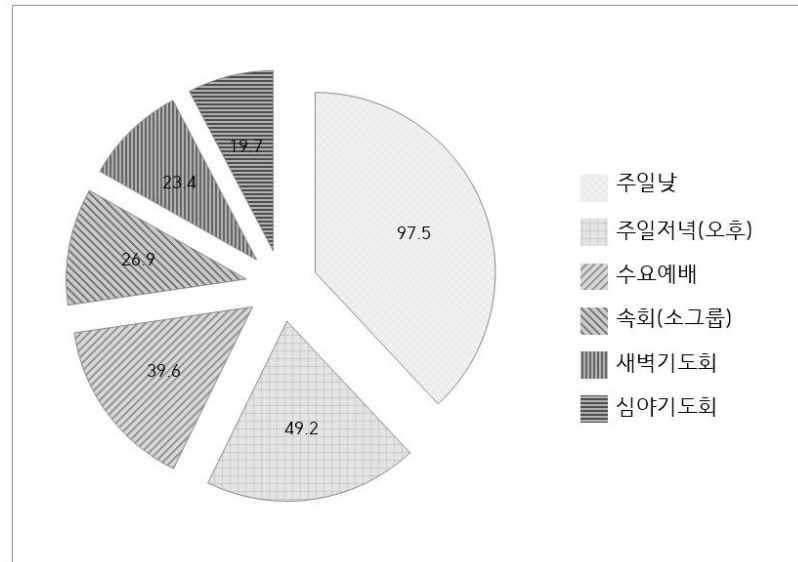
‘선배/동료’ (2.2%), ‘기독교 매체’ (2.1%)순으로 나타났다.⁴² 이와 같이 감리교인은 자신의 신앙 성장을 위해 교회 예배와 목회자에게 가장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를 위해 소그룹 지도자들은 그룹 구성원들이 집회에 참석하도록 독려하는 임무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되어 있다. 교회생활이 곧 신앙생활이라는 말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상식처럼 되어 있는 것이다.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 활동의 분포를 보아도 다양화 되었다. 교인들이 교회에서 하는 활동들을 보면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은 봉사활동(37.6%)이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 외적 사회봉사가 아니라 예배 안내, 주방 봉사, 주차 봉사 등 주로 교회 내 활동이다. 다음으로 찬양대(22.6%), 교회학교와 성경공부 교사(22.5%), 임원회(19.0%), 양육(성경공부) 또는 세미나 참여(12.3%), 속회(9.4%)등의 순이었다. 예배 외 다른 활동을 하지 않는 비율도 28.0%에 이른다.⁴³ 이러한 다양한 소그룹 활동 속에서 교인들은 말씀 양육과 훈련 부분에는 상당히 미흡하고 이 통계를 통해서 예배와 설교를 통해서 말씀 교육이 집중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⁴²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그래프로 보는 감리교인은 누구인가? ③,” *기독교 세계* 1004 (2014, 12월), 8.

⁴³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그래프로 보는 감리교인은 누구인가? ⑦,” *기독교 세계* 1010 (2015, 6월), 11.

<표3> 일주일간 교인들의 교회활동(중복 응답)



실제로 지난 일주일간 교인들의 교회활동을 보아도 주일 낮 예배 참석률은 97.5%나 되며, 그 밖에 주일 저녁(오후) 예배 49.2%, 수요일 예배 39.6%, 속회 26.9%, 새벽기도회 23.4%, 심야기도회 19.7%⁴⁴ 등으로 소그룹 활동 보다는 대중 집회에 특히 주일 예배에 집중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주 모이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다. 성경은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⁴⁵ 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당연히 모여야 다음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모이는 일로 인해 소그룹 본질적인 활동이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고, 대중 집회를 통해 상대적으로 소그룹 모임을 불가능하게 함으로 갈수록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 사회에서 교인들이 소그룹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다. 그로 인해

⁴⁴ Ibid.

⁴⁵ 히10:25.

교인들은 소그룹 활동에 있어서 선택참여 내지는 불참하는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결국 소그룹은 대중 집회의 그늘에 가려져 그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회의 대중 집회를 위한 인원 동원 조직 정도로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 당연히 소그룹 보다는 교인들은 목회자에게 집중될 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교회의 대형화로 조직화, 계급화, 제도화하여 목회자의 사각을 보완하는 교회 초기 한국교회의 소그룹은 유기적이었다. 교회 내의 각 지체가 되어서 서로 유기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자신의 독특한 위치를 가지고 우리 몸과 같이 공존한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100여년의 역사를 통해 유기적인 특성을 가지고 부흥 성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장점을 살리기보다는 오히려 대형화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시대적 요구라 하며 조직화 시키게 되었다. 이렇게 교회뿐 만 아니라 어떤 그룹이 소형화에서 대형화 되면서 그 그룹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도화하는 경향이 생기는데 이를 막스 베버는 “카리스마의 일상화”⁴⁶라고 설명 한다. 한국교회가 대형교회로 성장하면서 대그룹만 살리고 소그룹은 방치해 두었다. 대다수의 교회가 소그룹을 가지고 있으나 대의제도에 익숙해진 한국교회는 당회를 살리는 일에 너무 많은 힘을 너무 많은 힘을 쓰고 있다.⁴⁷ 조직화를 위해 상하직급과 피라미드형식의 관리체계는 대형화 된 교회에 담임목사의 목회력의 사각을 보완하는 아주 중요한 시스템이 되었다. 그로 인해 소그룹은 담임목사의 목회 방침과 교회의 공지를 전하는 수단 되었고 소그룹

⁴⁶ 정재영,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5), 184에서 재인용.

⁴⁷ 김한욱,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실태와 발전 방안,” 12.

지도자는 소그룹원들이 말씀의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제자화에 집중하기 보다는 목회자와 교회의 행정과 체계에 집중하게 된다.

초대교회는 가정교회였다. 소그룹의 역사를 볼 때 성경적으로나 교회사적으로 보면 초대 가정교회는 소그룹이었다. 이 가정교회에서는 제자가 되고 길러짐으로 날마다 믿는 이들이 더하여지고 생산 및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에 와서 조직화하고 그에 따른 직급이 주어지는 계급화를 통해 소그룹의 본질이 심각하게 약화되기 시작하였다. 조직화, 계급화가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제도가 교회의 기틀을 세우고 교회가 성장하는데 기여한 점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교회가 대형화 되면서 조직화 되니 신자들간의 결속력을 약화되어 교회나 그룹에 귀속감을 저하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교회 성장과 맞물려 “확장의 딜레마”⁴⁸가 발생하는 것이다. 목회자는 공동체를 통해서 신자들 사이에 일치와 연합, 결속을 원한다. 그렇지만 조직화 되면 하나의 소그룹은 교회를 유지하기 위한 효율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동안 작은 그룹이 가지고 있던 목회자와 신자, 신자와 신자간의 친밀한 공동체 생활을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 즉 교회가 부흥됨에 따라 조직화, 계급화, 제도화 되면서 소그룹은 그 본질인 생산과 재생산의 기능이 사라지게 되는 교회의 제도화의 딜레마⁴⁹에 빠지게 된다. 이 딜레마는 교회에 나가지 않는 성도들의 교회의 특징들을 살펴 보면 알 수 있다. 일명 가나안성도⁵⁰들은 보다 공동체적인 환경의 교회를 추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늘날의 교회가 건물 중심의 조직을 갖추고 규모가

⁴⁸ 정재영,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184.

⁴⁹ Ibid., 183.

⁵⁰ 가나안성도는 ‘안나가’를 거꾸로 읽는 단어로 기독교인으로서 정체성은 있지만 현재 교회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인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Ibid., 15-18.

커지면서 반대로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의 공동체적인 특성을 잃어 가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것이 종교 사회학에서 말하는 이른바 ‘교회의 제도화’의 딜레마다. 교회는 공동체를 추구하지만 그 형태는 사회 조직의 특성을 나타내는데서 오는 문제를 가리킨다. 그로 인해 소그룹의 활성화에 방해가 되고 신자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사교화 및 친목단체로 변질되는 소그룹

교회 내의 소그룹의 모임에 있어서 개인의 영성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 영국감리교회 역사에서도 “질적 영성 훈련과 성도의 교제를 양적 성장과 함께 사교적 친교로 전략하게 만들었다. 웨슬리의 성화된 속도들의 속회가 중산층 사교클럽의 속회로 바뀌게 된 것”⁵¹이라고 한다. 즉 소그룹 활동에 있어서 개인의 영성 생활에 집중하지 않게 되면 예배는 형식적으로 드리고 친교적인 그룹으로 변질되어 버린다는 것이다. 실제로 소그룹으로 유명한 대형 교회에 다녔던 한 교수는 교회가 이제는 ‘사교 클럽’이 돼 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교회 본래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었다고 말한다.⁵² 그렇다면 교회 내의 소그룹이 사교화 및 친목단체로 변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교회가 대형화 되면서 목회자와 신자 사이는 멀어지고 그에 따라 진솔한 대화 및 신앙 상담 등을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이 기능을 소그룹에서 담당하여 신자들끼리 모여 허심탄회한 이야기와 진솔한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 또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져야

⁵¹ 김홍기, *감리교회사-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웨슬리에서 아펜젤러까지(1725-1885)*, 267.

⁵² 정재영,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90.

하며 성경 말씀을 배우고 삶에 적용하는 전인적(holistic)⁵³인 훈련이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그러나 소그룹 내에서 목회자와 같이 성경에 대한 전문성을 띠고 헌신하여 지도하고 돌보는 소그룹 지도자가 세워지기 어렵다.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소그룹 유형들은 대부분 헌신하는 목회자와 평신도 지도자를 요구한다. 이 요구를 충족될 때 건강한 소그룹이 되는 반면 그렇지 못할 경우 전인적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되는 그룹이 되는 것이다. 이는 성경 말씀이 지양된 관계지향적, 교제지향적인 소그룹으로 변질되고, 그 대화의 주제도 성경이 아닌 신변 잡담이나 세상 이야기가 주가 될 수 밖에 없다. 결국 말씀과 예배보다는 그룹원들 간에 친교에 집중하게 각종 문화 및 체육 활동에 관심을 두는 사교클럽화 되는 것이다.

웨슬리는 속회를 통해서 “돌보는 것, 세우는 것, 증인을 만드는 것” 이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소그룹 활동의 본질이 깨어지는 순간 친교모임이 되고 만다.

따라서, 잦은 대중 집회를 통해 목회자 중심의 교회나 교회를 조직화, 체계화 시킴으로써 목회자의 사각을 보완하는 교회들은 결국 교회의 모든 시스템이 목회자 중심으로 움직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목회자 중심의 교회는 아무리 탁월한 효과를 발휘하는 소그룹 유형이 있다 하더라도 초대교회의 부흥과 영국 감리교회의 부흥, 한국 초대 감리교회의 부흥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소그룹의 활동을 약화시키고 친목모임화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교회에 목회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그러나 교회나 신자들이 목회자에게 과도하게 집중되는 것이 그 동안 소그룹을 통해 이루어 왔던 건강한 교회, 부흥하는 교회⁵⁴를 훼손하고 있다는 점은

⁵³ Holistic: 단지 각 부분만이 아니라 전체에 관심을 기울이는 온전한. Christian Schwarz, *Natural Church Development*, 박동진, 오태균, 윤수인, 정진우 역, *자연적 교회 성장* (서울: 도서출판 NCD, 2006), 32.

⁵⁴ 자연적 교회 성장에 8가지 질적 특성 1은 사역자를 세우는 지도력, 질적 특성 6은 전인적 소그룹이다. 목회자가 사역자를 소그룹에 세워 전인적인 돌봄이 있는 소그룹을 만들지 못하면 건강한

의심할 수 없다.

꿈이있는교회의 소그룹 활동

본 교회의 소그룹 활동은 한국감리교회의 전통적인 방법에 따라 보통 정해진 시간에 모여 속회 지도자의 진행에 따라 예배(20분), 교제와 다과(20분)로 이루어진다. 속회예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소그룹의 구성원들의 가정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순회 방문하여 드리는 예배이다. 감리교 속회공과에 따라 찬송을 부르고 정해진 성경 본문을 읽고 말씀을 나눈 후 찬송과 헌금을 드리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친다. 그리고 방문한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다과나 혹은 식사를 대접하게 된다. 음식을 서로 먹으면서 상담, 간증, 권면, 교제 등이 이루어지게 된다.

이렇게 모인 소그룹의 속회 지도자는 이 소그룹 활동에 대해 목회자에게 보고한다. 이 보고서에는 모인 장소와 모임 장소, 부른 찬송, 함께 나눈 말씀과 설교, 헌금 액수, 소그룹원들이 통독한 성경 장수, 결석자 명단, 기도요청 등을 기재되어 있다. 이 보고서를 통해 목회자는 소그룹원들의 신앙과 영적, 심리적 상태 및 가정과 자녀들, 사업과 문제점, 인간 관계에서의 갈등 등을 파악하기에는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여 심방이라든지 어떠한 목회적 돌봄을 적용해야 할지 판단하기에 너무나도 어려움이 있다. 그러다 보니 소그룹 활동에서 지도자가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상담, 간증, 권면, 교제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결국 소그룹의 지도자의 신앙과 성서적 근거에 바탕을 둘 수밖에 없다.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성경을 읽은 시간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1시간

이하가 33.1%, 2~4시간이 23.6%, 5시간 이상이 11.8%로 조사되었다. 31.5%나 되는 성도들은 전혀 성경을 읽지 않았다.⁵⁵ 교인들의 성경 읽기 훈련이 필요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소그룹 활동에는 신앙교육 내지는 말씀 훈련을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실재적으로 소그룹을 통해서 성경통독의 양과 질은 너무나도 부족하다. 따라서 최근 5년간 본 교회 소그룹 활동 때 배우는 성경 본문과 말씀 제목을 분석해 본다.

최근 5년간 소그룹에서 예배하며 나누는 성경본문과 제목

본 교회 소그룹원들이 속회로 모였을 때 우선 예배를 드린다. 이 때 사용하는 예배 지침서는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에서 엮어 출판하는 “속회 공과”이다. 이 지침서에서는 순서에 따라 찬송, 기도, 성경말씀, 설교 등이 실려 있다. 다음은 1년 52주차 중 2014년 7주차 2월 14일 속회공과⁵⁶에 실린 예배순서의 실례이다.

- ① 주 제: 기록하여 사랑을 행하라
- ② 찬 송: 503장 세상 모두 사랑 없어/ 517장 가난한 자 돌봐주며
- ③ 기 도: 말은 이
- ④ 오늘의 말씀: 레위기19:9-18절
- ⑤ 말씀나누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이 되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계명을 준행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존귀하게 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며,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십계명과 세부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 산에 이르렀을 때 모든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세부

⁵⁵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그래프로 보는 감리교인은 누구인가? ②,” *기독교 세계* 1002 (2014, 10월), 8.

⁵⁶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4교회력에 따른 속회공과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서울: KMC, 2013), 36-39.

법을 전해 주셨습니다. 이 기록이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까지입니다. 특히 레위기 19장에는 모든 율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거룩함이니라”는 계명과 “네 이웃 사랑하기를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은 온 율법의 핵심이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레19:2, 18)

1. 약자들을 배려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9~10절, 13~14절)

본문에서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고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고 하였습니다. (9~10절) 밭에서 나는 소출의 일정한 부분을 가난한 자와 나그네의 몫으로 남겨주라는 계명은 가난한 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 줍니다. 이어서 본문은 “품꾼의 삯을 아침까지 밤새도록 네게 두지 말고 너는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맹인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13~14절) 이는 경제적, 신체적 약자들을 배려하고 돌보는 삶이 이웃 사랑이라고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품꾼의 삯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생계수단입니다. “멧돌이나 그 위 짝을 전당 잡지 말지니”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입니다. (신24:6) 이웃 사랑은 약자들을 배려하는 삶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잘 돌보아야 합니다. 신체적 약자들이 곤경에 빠지지 않게 관심 갖고 배려해야 합니다.

2. 공정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11~12절, 15절)

이웃 사랑이란 상대를 해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삶입니다. 본문에서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고 속이지 말고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라고 하였습니다. (11절) 공동체 안에서 남의 소유를 훔치고, 상대를 속이면 서로 불신하게 되고 한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됩니다. 정직한 삶이 가정과 교회, 민족을 살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합니다. (12절) 또한 하나님은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고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고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라고 명하셨습니다. (15절) 불의가 용납되고 지도자나 재판관이 뇌물을 받게 되면 그 공동체는 부패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고 하였습니다. (시89:14) 하나님의 공동체는 정의와 공의가 살아 있어야 합니다. 다윗 왕이 정직하기를 기도하고, 아들 솔로몬을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정직하게 행하고 공의로 이웃을 대해야 합니다. 공정하게 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3. 험담과 비방으로 남을 해하는 것도 큰 죄입니다. (16절)

16절에서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고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험담과 비방으로 타인을 해하고, 불의와 손잡고 이웃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도 큰 죄라고 명하셨습니다. 십계명의 아홉 번째가 “네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 하지 말라”입니다. 거짓말을 퍼뜨리고 악을 도모하는 행위는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큰 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람 속에 있는 거짓 증언과 비방 등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도 악의와 비방은 부끄러운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율법은 자기 부모를 저주하고 비방하는 자를 죽이라고까지 하였습니다. (레20:9) 따라서 우리 성도는 험담과 비방의 말이 아닌 허물을 덮어 주는 사랑의 말을 해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듯이 성도는 은혜의 말, 서로를 살리는 말로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4.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17~18절)
17절에 “너는 네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네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만 죄라고 하지 않으시고 미워하는 마음이 곧 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고 했습니다. 범죄한 형제를 대하는 바른 태도는 미워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 타이르고 바로잡아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고 하셨습니다. (눅17:3) 이웃 사랑은 죄 짓는 것을 모른 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책망하고 돌이키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수를 갚지 말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8절) 바울은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고 하였습니다. (롬12:19) 우리는 이웃이 죄를 범하면 미워하거나 판단하지 말고 죄에서 돌이키도록 권면해야 합니다.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심을 믿고 성도는 이웃에 대하여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 ⑥ 합심기도: 약한 사람을 돕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회의 어렵고 힘든 가정을 회복의 능력으로 인해 주옵소서.
- ⑦ 헌금/ 찬송: 474장 인류는 하나 되게
- ⑧ 마침기도/ 주님의 기도
- ⑨ 친교의 시간

최근 5년간 속회 공과에 실린 공과 본문과 제목을 정리하여 부록에 실었다.

단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2010년도 1년 분량의 본문과 제목은 다음과 같다.⁵⁷

2010년도 속회 공과 본문과 제목 - 총 주제: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⁵⁸

01주차: 0101-요2:1-11_2010년을 주님과 함께

02주차: 0108-마28:16-20_전도는 신앙인의 사명

⁵⁷ 2010년도 속회 공과 본문과 제목만을 신고, 2011-2014년까지의 4년 동안의 속회 공과 본문과 제목은 부록을 참조.

⁵⁸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0속회공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서울: KMC, 2009).

- 03주차: 0115-행22:1-16_자기 체험의 간증
04주차: 0122-롬1:1-6_우리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05주차: 0129-눅24:45-49_증인의 사명
06주차: 0205-딤후4:1-5_복음 전파의 때
07주차: 0212-살전2:8-10;살후3:9-13_열심히 일하는 목적
08주차: 0219-미가6:6-8_옳은 일을 하는 사람
09주차: 0226-눅7:33-35_복음의 친구
10주차: 0305-눅14:7-11_겸손한 사람
11주차: 0312-창6:9;벧후2:5_의로운 사람 노아처럼
12주차: 0319-에4:10-17_나는 사명자입니다
13주차: 0326-욘3:1-10_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14주차: 0402-갈6:14_십자가의 자랑
15주차: 0409-눅24:1-7_부활의 신앙
16주차: 0416-요8:12_가정은 세상의 빛
17주차: 0423-고후1:3-10_고난을 함께 나누는 가정
18주차: 0430-롬12:12;15:4-6,12-14_소망을 나누는 가정
19주차: 0507-골3:12-14_생명을 살리는 사랑
20주차: 0514-고후13:11-13_평안이 필요한 가정
21주차: 0521-고후5:18-19;살전5:13_화목의 관계
22주차: 0528-엡2:1-9_하나님의 특별한 선물
23주차: 0604-롬3:10-12,19-24_죄임을 고백하는 가정
24주차: 0611-요1:9-14;행4:8-12_구원은 오직 예수
25주차: 0618-창18:17-19_부름 받은 아브라함의 가정
26주차: 0625-창35:2_벧엘로 올라간 야곱의 가정
27주차: 0702-행18:8_회당장 그리스보의 가정
28주차: 0709-행2:14-24_성령 공동체
29주차: 0716-고후13:1-10_고린도 교회의 회개
30주차: 0723-갈2:6-9_선교사를 파송한 안디옥 교회
31주차: 0730-엡4:11-16_성숙한 교회
32주차: 0806-딤후2:11-15_믿음의 생활
33주차: 0813-딤후2:1-2_충성스러운 일꾼
34주차: 0820-롬14:17-19;고전14:40_교회의 질서
35주차: 0827-골2:1-3,18-23_교회의 연합
36주차: 0903-고전4:15-17_선교사 디모데를 본받아
37주차: 0910-행18:24-28_제자 양육을 자랑 삼는 교회
38주차: 0917-행11:20-21_구브로와 구레네 사람들
39주차: 0924-행11:22-24_바나바와 같은 착한 일꾼
40주차: 1001-약3:17-18_교회 회복의 열매

- 41주차: 1008-요3:13-16_하나님의 사랑
 42주차: 1015-시22:27-29_찬양으로의 초대
 43주차: 1022-고후8:1-7_빈곤을 나누는 교회
 44주차: 1029-호2:16-20_자연환경의 회복
 45주차: 1105-행1:8;요일4:13_성령의 동력
 46주차: 1112-요10:28_영생으로 가는 길
 47주차: 1119-전3:11-15_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48주차: 1126-엡3:7-9_하나님의 은혜
 49주차: 1203-마16:13-20_천국 열쇠
 50주차: 1210-갈5:1_영적인 자유
 51주차: 1217-요14:23-27_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52주차: 1224-요1:14-18_하나님을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
 53주차: 1231-마10:16_전도의 방법

2011년도 속회 공과 본문과 제목 - 총 주제: “역경을 이기는 그리스도인”⁵⁹

2012년도 속회 공과 본문과 제목 - 총 주제: “변화와 성장으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⁶⁰

2013년도 속회 공과 본문과 제목 - 총 주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⁶¹

2014년도 속회 공과 본문과 제목 - 총 주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⁶²

<표4> 최근 5년간 소그룹 내 예배 때 사용된 성경본문 신구약 현황

구분 \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계
구약	9	40	26	27	19	121
신약	43	12	26	25	33	139

⁵⁹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1년 속회공과 역경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서울: KMC, 2010).

⁶⁰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2 속회공과 변화와 성장으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 (서울: KMC, 2011).

⁶¹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3 속회공과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 (서울: KMC, 2012).

⁶²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4 교회력에 따른 속회공과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서울: KMC, 2013).

최근 5년간 소그룹 내 예배 때 사용된 구약성경 본문 권별 사용현황(숫자는 본문으로 사용된 주차)

<표5> 구약성경 - 모세오경

권별 \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용횟수
모 세 오 경	창세기	2,49,52	5,6,20,21, 29,44,47, 49,52	1,2,27	1,2,3,4,5,6 ,7,8,9	11,12	26회
	출애굽기		2	3,4,28	10,11	9,13	8회
	레위기					7	1회
	민수기				12,15		2회
	신명기					6,27	2회

<표6> 구약성경 - 역사서

권별 \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용횟수
역 사 서	여호수아		3,38	29	26,28,29		6회
	사사기		4,10,26	5			4회
	룻기		9	30			2회
	사무엘상		7,18,28,33	6,31,32	30,31,32,33	14	13회
	사무엘하		24	33,34	34		4회
	열왕기상		45	7,35	35		4회
	열왕기하		19,22	36	36,37,38	44	7회
	역대상						0회
	역대하		23				1회
	에스겔					15	1회
	느헤미야		14	37			2회
	에스더	12	25	38			3회

최근 5년간 소그룹 내 예배 때 사용된 신약성경 본문 권별 사용현황(숫자는 본문으로 사용된 주차)

<표9> 신약성경 - 복음서

권별 \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용횟수
복 음 서	마태복음	2,49,52	1	14,15,16	17,18,20, 50	17,25,26, 28,29,30, 31,32,34, 35	21회
	마가복음			17,18,19, 20,21	22		6회
	누가복음	5,9,10,15	43	22,23,24,2 5	23,24,27,3 9,51	18,51,52	17회
	요한복음	1,16,24,41 ,46,51,52	13,41	26,41,42	25	20,21,22,2 4	17회

<표10> 신약성경 - 역사서

권별 \ 년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사용횟수
역 사 서	사도행전	3,24,27,28 ,37,38,39, 45	16,30,32,3 6,42,51	43,44,45,4 6,47,48	21,40,41,4 2,43,44	23	27회

<표11> 신약성경 - 바울서신

권별		년도					사용횟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바 울 서 신	로마서	4,18,23,34		49	16	36,37	8회
	고린도전서	34,36		50	14	48	5회
	고린도후서	17,20,21, 29,43		51			6회
	갈라디아서	14,30,50		52			4회
	에베소서	22,31,48			19	19,33,50	7회
	빌립보서			52		39,40,41	4회
	골로새서	19,35				42,43,45,47	6회
	테살로니가전서	7,21				52	3회
	테살로니가후서	7					1회
	디모데전서						0회
	디모데후서	6,33				38	3회
	디도서	32					1회
빌레몬서		35		46		2회	

<표12> 신약성경 - 공동서신

권별		년도					사용횟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공 동 서 신	히브리서				47		1회
	야고보서	40			48		2회
	베드로전서						0회
	베드로후서	11				49	2회
	요한일서				49		1회
	요한이서						0회
	요한삼서				52		1회
	유다서						0회

<표13> 신약성경 - 예언서

권별		년도					사용횟수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예언서	요한계시록	0	0	0	0	0	0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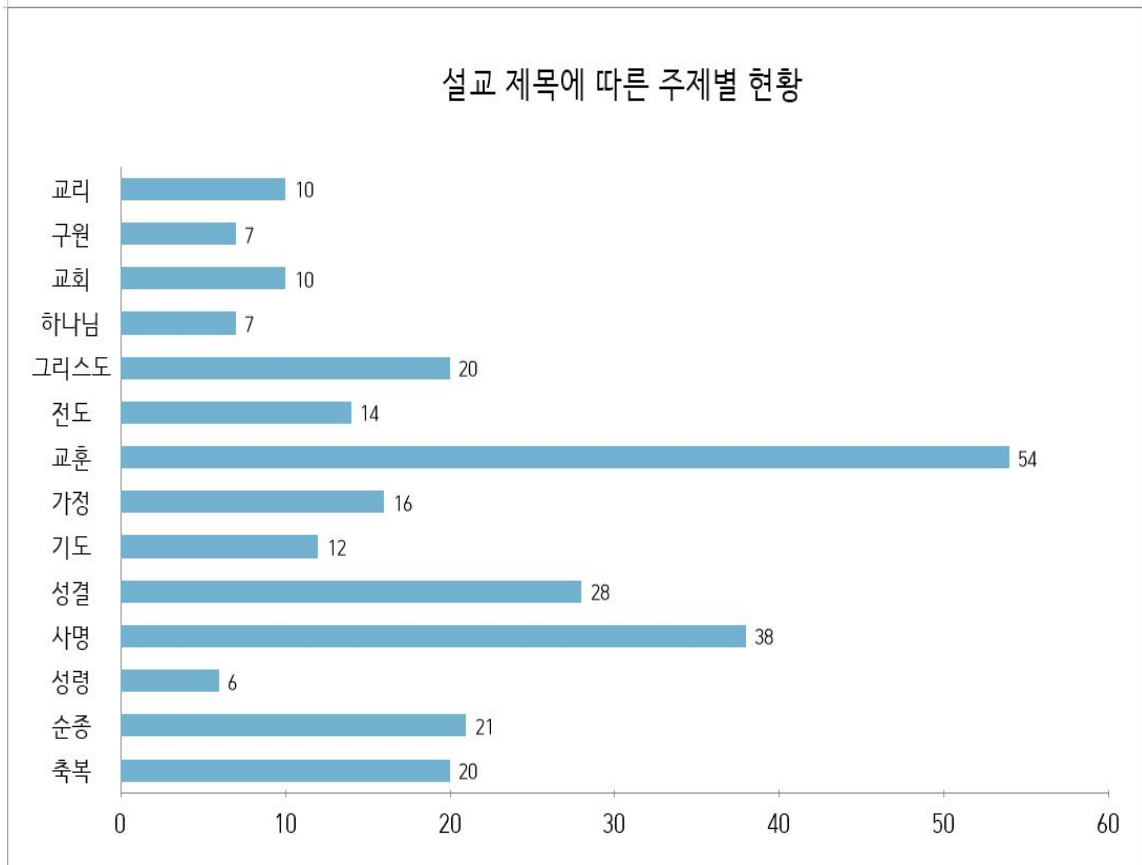
<표14> 최근 5년간 소그룹 내 예배 때 설교 제목으로 본 주제

구분	교리	구원	교회	하나님	그리스도	전도	교훈
횟수	10	7	10	7	20	14	54
구분	가정	기도	성결	사명	성령	순종	축복
횟수	16	12	28	38	6	21	20

분석과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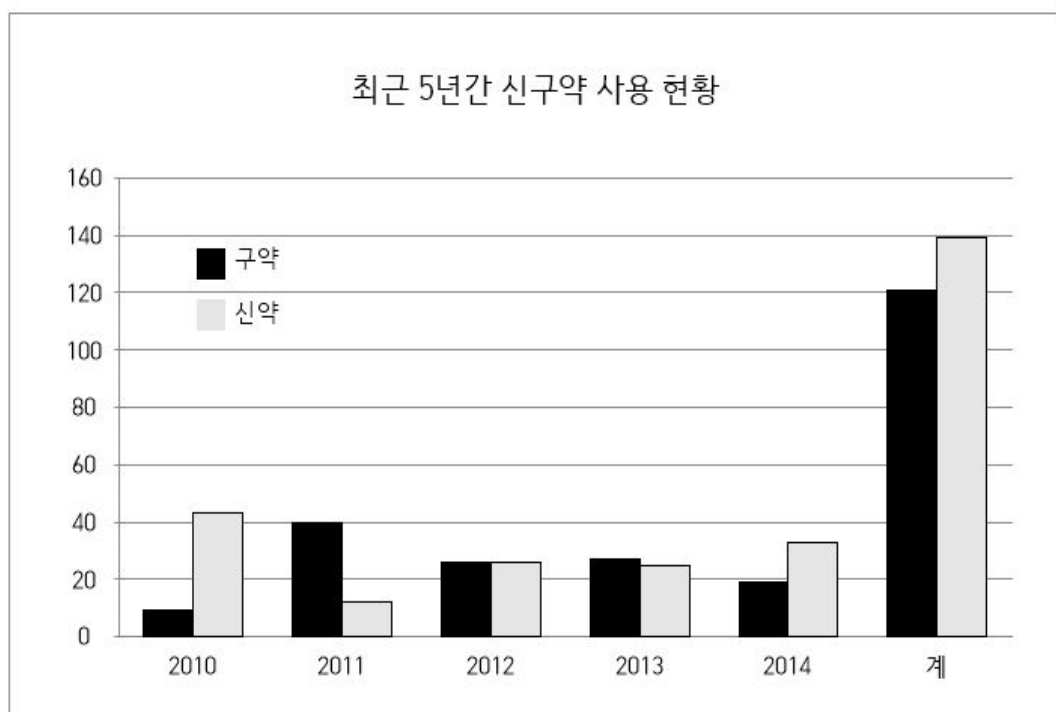
본 교회에서 최근 5년 동안 이루어진 소그룹 활동 중에 속회에서 이루어지는 예배에 나누는 성경본문의 특징을 살펴보면 체계적인 말씀 훈련에 부족할 수 밖에 없는 구조이다. 성경은 66권이지만 그러면서도 단 한 권의 하나님의 말씀인 책이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그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일주일에 한 번 모여 20분 예배하면서 성경과 설교말씀을 듣는 그 짧은 시간으로는 부족하다. 게다가 성경 본문의 선택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성경 일부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표14>에서와 같이 그 주제를 살펴 보면 5년 동안 260회의 예배 설교 가운데 교훈(54회), 사명(38회), 성결(28회), 순종(21회) 순으로 나타났다.

<표15> 설교 제목에 따른 주제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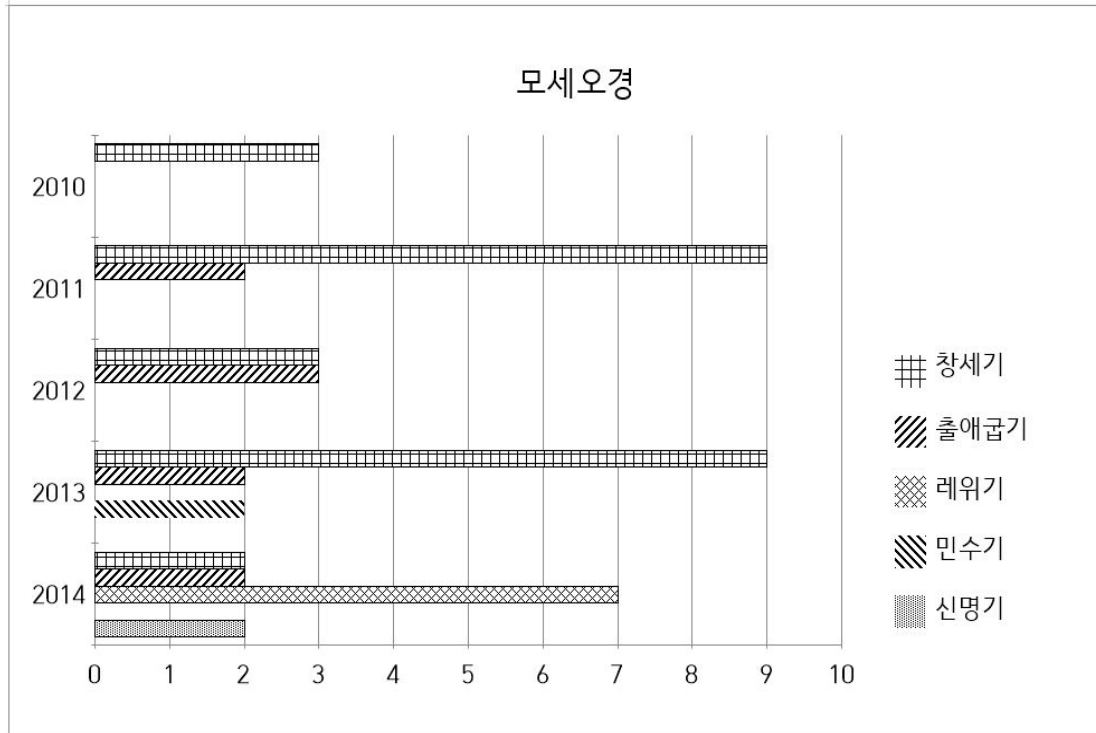
위의 <표15>는 소그룹 예배 때 선택된 본문과 설교의 제목을 통해 파악된 주제들을 구분하여 정리한 것이다. 그 중 교훈과 성결의 주제가 많은 빈도로 사용되었다. 설교를 통해 성경은 도덕 및 윤리 교사가 되었으며, 사명과 교리, 구원 등 개념과 명제를 가르치는 재료가 되었다. 즉 이러한 소그룹 활동을 통해서도 성경에 담긴 하나님의 역사와 나라 이야기뿐 만 아니라 각 이야기들 마다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전혀 없음을 판단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활동이 5년 동안 지속되어 왔다는 것이다.

<표16> 최근 5년간 신구약 사용 현황



최근 5년간 소그룹 모임에서 예배 드릴 때 신구약 사용 현황을 보면 2012년과 2013년도에는 비교적 신구약 사용 빈도가 엇비슷하다. 그러나 2010년도에는 구약성경 9회, 신약성경 43회로 신약성경을 1년 동안 82%를 편중 선택하여 예배 때 사용되었다. 2011년도에는 오히려 구약성경 40회, 신약성경 12회로 구약성경을 1년 동안 77% 편중 선택 사용하였다. 성경 66권 전체를 놓고 보면 그 편중됨이 더욱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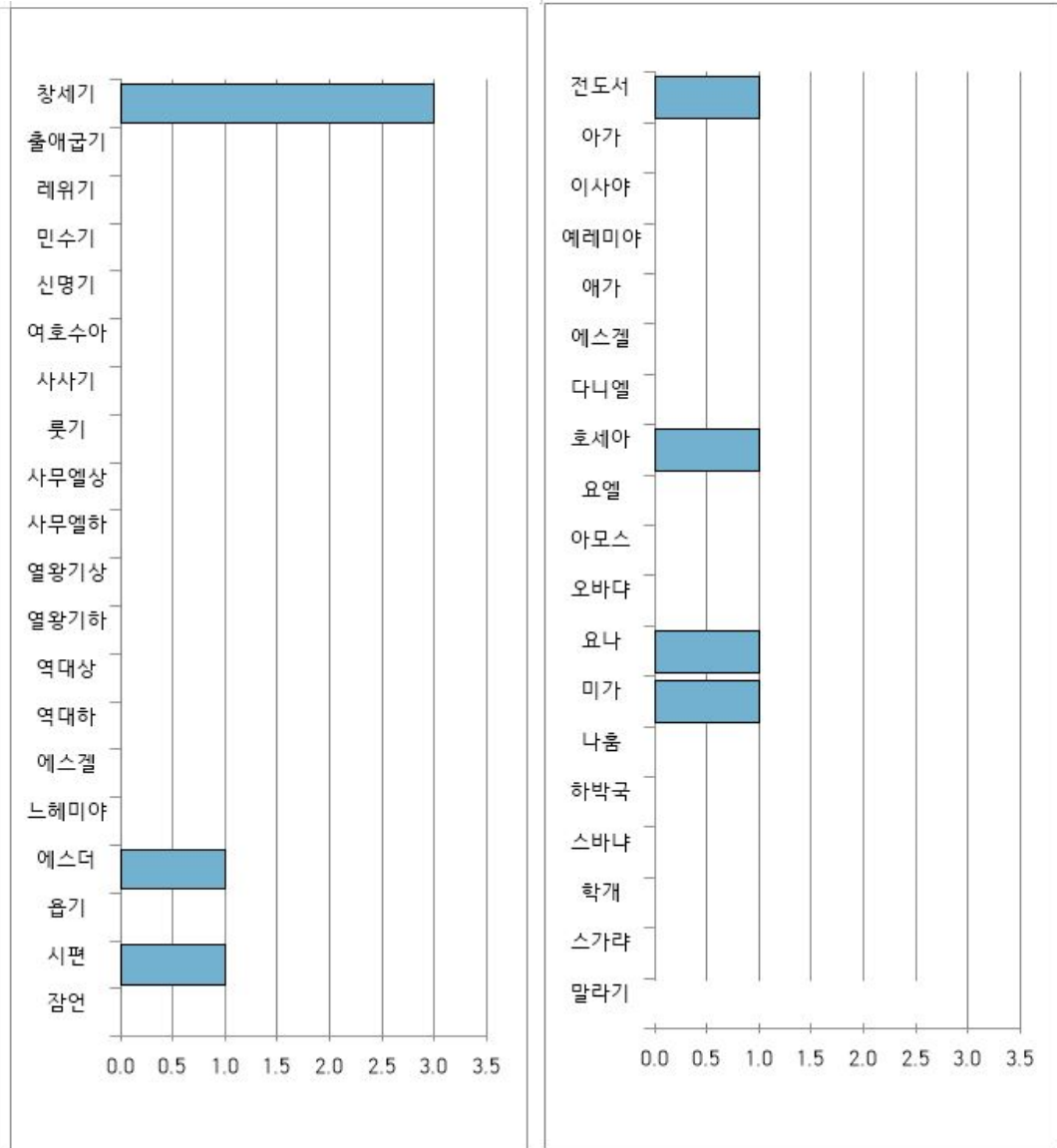
<표17> 모세오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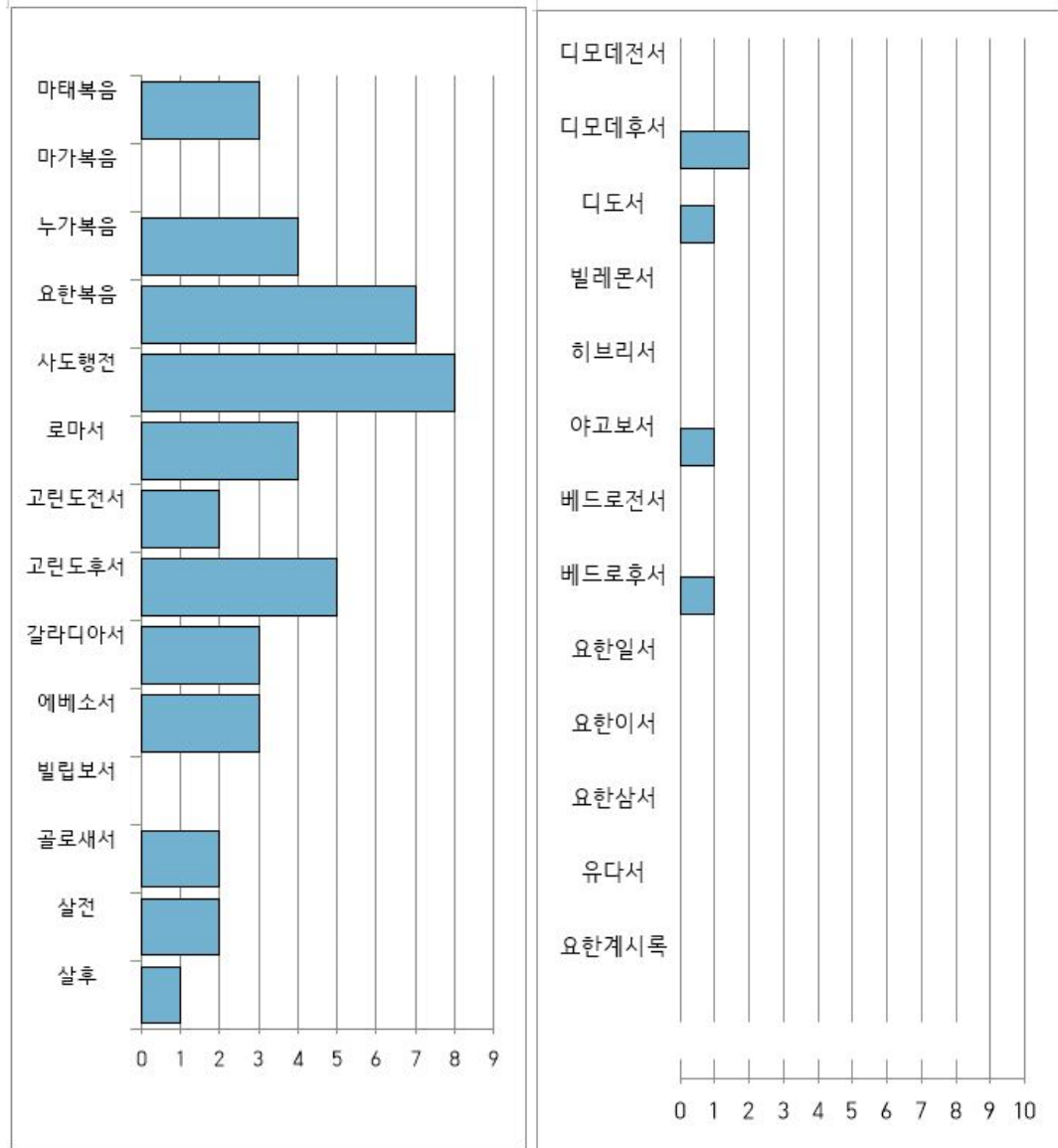
<표5>에서 알 수 있듯이 창세기는 해마다 꾸준히 본문으로 채택 되어 예배 때 사용된 반면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의 경우에는 5년 동안 1~2회만 채택 되었을 뿐이다.

5년 동안 창세기는 비교적 고르게 26회 채택 사용된 반면 출애굽기는 2010년에는 한 번도 사용되지 않았고, 2011년~2014년까지 8회, 레위기 2014년에만 1회, 민수기 2013년에만 2회, 신명기 2014년에만 2회 사용되었다. 1년 동안 한 번도 채택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편중됨은 2010년 한 해만 보더라도 충분히 알 수 있다.

<표18> 2010년도 구약성경 본문 채택 현황



<표19> 2010년도 신약성경 본문 채택 현황



<표5>에서 <표13>까지의 분석을 통해서 또한 알 수 있는 것은 성경 본문 선택에 있어서 역사적, 사건별로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편적인 구절을 사용했다는 점이다. 일례로 1주차에서는 분명 요한복음을 본문으로 택하여 말씀을 나누었지만 2주차에서는 창세기가 본문으로 택하여졌으며, 3주차에서는 사도행전이 본문으로

채택되었다. 분명히 성경에는 역사의 흐름과 사건의 인과 관계가 들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 52주 동안 연속된 하나님의 역사 이야기는 찾아 볼 수 없었다. 이러한 현상이 최근 5년 동안 소그룹 활동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렇게 단편적이고 편중적인 말씀 선택에 따른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의 연속성이 사라지고 이해도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연구자는 프로젝트 실행 이전에 회중들에게 지난 주 설교 제목에 대해 묻곤 했다. 또는 기억나는 부분에 대해 답해 보라고도 했다. 3일 전 소그룹 속회 모임에서 나는 말씀을 이야기 해 보라고도 한다. 그러면 100명 중 1~2명을 제외하고는 시선을 회피하거나 고개를 갸웃거리기만 할 뿐 대답을 하지 못한다. 이에 대해 감리교 신학대학 김영래교수는 “교회는 여전히 이야기와 은유가 아닌 요점과 원리에 매달려 세상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⁶³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 동안 주일 및 수요 예배 등 각종 공 예배뿐 아니라 소그룹에서 드리는 예배의 말씀으로는 신자들과의 소통은 물론이고 세상 사람들과의 대화는 기대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설교의 내용이나 주제는 신자들이 성경의 이야기와 그 이야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려 하기 보다는 성경을 가지고 교회 유지를 위한 요점과 원리, 개념과 명제, 교리의 전달을 위해 선택 하였던 것이다. 그로 인해 성경 구절은 신자들의 기억 속에 남게 할 수 없을 뿐 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만질 수조차 없는 것이다. 이러한 설교를 통해서도 세상은 물론 기존 신자들과의 소통도 어려운 것이 당연한 현상인 것이다. 이에 대해

⁶³ 김영래, “내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리포 탐구,” *신학과 세계* 84 (2015), 528.

레너드 스윗 교수⁶⁴도 “오늘의 문화는 단어가 아닌 이미지, 은유, 상징, 이야기를 통해 자신의 영성을 표현하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오늘날의 사람들은 자신의 세계를 은유적 이야기 위에 건설한다”라고 말하면서 교회가 세상과 소통하지 못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는 것이다. 설교뿐만 아니라 소그룹 내에서 편향적인 성경 본문 선택을 통해서도 그룹 내에서도 서로 소통하지 못할 뿐 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또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성경 말씀을 접하게 될 때 분명 개인의 영적 성장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이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한 목회자는 감리교회에서 소그룹 활동이 축소되는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첫째,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집을 개방하는 것보다 사생활 보호를 더 선호하고, 둘째로 훈련되지 않는 속회 지도자들이 많이 생겨났고, 셋째로 자신의 개혁을 위해 도전하지 않으며, 넷째로 단지 형식적으로 속회를 유지하는 그치고 있다”⁶⁵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 소그룹 활동의 축소 및 문제점들의 출현은 상담과 친교의 부족이 아니다. 관계성의 부족도 아니다. 시대의 흐름도 아니다. 바로 속회의 본질인 신앙교육과 훈련, 제자가 되는 삶으로 결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그 훈련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제대로 된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와 뜻을 깨닫게 될 때야 비로소 소그룹은 생명력 있고 역동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다. 기존의 여러 가지 소그룹 활성화 프로그램이나 방법론적인 시도에는 각 가지 약점들이 있었다. 한계점들이 있었던 것이다. 그 약점과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비결은 무엇일까?

⁶⁴ Ibid., 2에서 재인용.

⁶⁵ 박용호, *존 웨슬리의 속회론*, 191.

그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다. 올바른 성경읽기가 대안이다.

제 III 장

통성경 길라잡이의 이해

『통성경 길라잡이』란 무엇인가?

통(通) 성경이란?

이전까지 우리는 성경을 분류할 때 율법서, 역사서, 시가서, 예언서 등 장르에 따라 나누어 왔다. 그리고 성경 자체도 주제별 혹은 장르별로 편집되어 있다. 그로 인해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와 인과관계에 상관없이 읽어왔고, 인물의 등장 순서에 따른 시대적 구분 및 사건 배열을 할 수 없다 보니 여러 차례 반복하여 읽어도 성경의 역사 흐름과 내용을 쉽게 정리하기 어려웠다. 모세오경(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과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 사무엘하까지는 어느 정도 시대 흐름대로 이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열왕기상·하에 들어가고, 또 시가서와 예언서에 이르게 되면 여러 지명과 인물들의 등장으로 인해 성경을 이해하기란 여간 힘든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선교사이자 성경연구가는 이전에 “선교단체에서 성경을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성경 전체를 ‘통’으로 꿰뚫는 바IBLE 스터디에 늘 목말라 했다”¹면서 본인이 성경 교사로 성도들을 가르치면서도 성경에 대해 깊이 알지 못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말한다. 그는 이에 대해 “왜

¹ 류모세,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1* (서울: 두란노서원, 2013), 15.

성경은 10번, 아니 100번을 읽어도 항상 새로운 걸까?”²라는 의구심을 갖게 되었으며, 그 이유에 대해 잘못된 성경읽기에서 기인했다고 말한다. 기존의 편집순서나 장르별 성경읽기 또는 선택된 구절만을 읽는 성경읽기가 아니라 역사 드라마처럼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시기에 맞춰서 그 동안 한국 교회와 성도들의 잘못된 성경읽기를 바로 잡기 위해 ‘성경탐구 40일’³, ‘성경의 파노라마’⁴, ‘성경 익스프레스’⁵, ‘어? 성경이 읽히네!’⁶, ‘성경의 맥을 잡아라’⁷ 등 많은 결과물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성경읽기 프로그램 내지는 서적들의 공통점을 보면 근동 역사, 성서 지리, 성서 고고학 관점에서 성경을 이해하도록 돕는 책들이란 점이다.⁸ 그래서 각종 고고학적 자료들, 수많은 성경 지도, 주변 나라들의 역사 비교 등을 싣고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즉 한국 교회와 성도들이 성경을 읽을 때 스토리와 인과관계에 상관을 밝히며 이해하도록 읽게 했고 또한 인물의 등장애 따른 시대적 구분 및 사건 배열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런데 조병호박사의 저서 『통성경 길라잡이』를 비롯한 통(通)의 개념은 기존의 여러 가지 역사순 성경 읽기 방식에 성경 이해의 탁월함과 깊이를 더 해 준다. 즉 성경전체를 역사 순으로 재배열해서 읽게 함으로 기존의 다양한 성경 일독 프로그램에 통(通)을 더함으로 역사순으로 읽는 것 이상의 것들을 깨닫게 해 주는

² Ibid., 17.

³ 바이블 칼리지, *성경탐구 40일* (서울: 두란노서원, 2009).

⁴ Terry Hall, *Bible Panorama*, 배웅준 역, *성경 파노라마* (서울: 규장, 2009).

⁵ Terry Hall, *Bible Express*, 배웅준 역, *성경 익스프레스* (서울: 규장, 2008).

⁶ 이에실, *어? 성경이 읽히네!* (서울: 두란노서원, 2007).

⁷ 문봉주, *성경의 맥을 잡아라* (서울: 두란노서원, 2007).

⁸ 류모세,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1*, 19.

중요한 성경읽기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더욱 자세히 말하면 우리는 성경을 분류하면 66권으로 말한다. 그로 인해 우리는 성경에 대해 66권 별개의 것으로 보는 잠재적인 인식이 있다. 루터와 칼뱅, 츠빙글리와 진젠도르프, 웨슬리 등은 하나같이 “한 책의 사람” (Man of One Book)으로 불려지기를 원했다고 한다.⁹ 이렇게 기독교사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이들은 한국 교회 성도들처럼 성경의 각 권 책들을 별개의 것으로 보지 않았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성경을 읽을 때 전체로 보려 하지 않고 좋아하는 구절만 암송하는 일명 “구절병”¹⁰, 그 구절을 모아 즐겨 보는 “내가복음”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러한 한국 교회 성도들의 성경 보는 자세로 인해 발생할 문제점에 대해 레너드 스위트는 “성경을 절(節)로서 조각을 내놓는 것은 어른뿐만 아니라 아이들도 괴롭게 하는 것이다. 4-7세를 대상으로 하는 주일학교에 참석해 보라. 물론 그곳에서 많은 성경의 이야기를 들을 것이다. 하지만 십중팔구 그 이야기는 도덕적 교훈이나 주장으로 축소되고 마는 ‘채굴된’ 이야기가 될 것”¹¹이라고 말한다. 이에 대해 조병호는 “서구 중심으로 발전해 온 기독교 역사 속에서, 서구적 지식연구방법이라 할 수 있는 분절적, 분석적, 해체적 방식을 통해 성경을 접근하고 연구해왔기 때문”¹²이라고 말한다. 우리가 『로마인 이야기』나 『삼국지』를 읽을 때 중간에 필요한 부분을 읽는 것이 아니라 첫 권부터 끝까지 한 번에 읽어가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도 조병호는 “부분이 아닌

⁹ 이덕주, *한국교회 처음이야기* (서울: 홍성사, 2006), 193.

¹⁰ 2014년 1월 13일~15일 서울 한강호텔에서 열린 “Dr. Leonard Sweet & Dr. Byoungoh Zoh Let's Tong Scriptura Seminar”에서 14일 ‘Bible And Semiotics’라는 주제의 강의 중에 여러 번 언급한 용어로 성경을 전체로 보지 않고 구절로 보고 암송함으로써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한 의미를 모르거나 오히려 훼손하는 경우에 대해 말한다.

¹¹ Leonard Sweet, *21세기 동서동행 미래교회 컨퍼런스* (서울: 한시미션, 2007), 17.

¹²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17.

전체로 읽는 것”¹³이라 말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편집되어 있는 성경의 순서대로 읽을 것이 아니라 “역사 순으로 재배열해서 읽는 것”¹⁴이 바른 방법이라 말한다. 여기서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고 인물별, 지리적 관점에서 성경을 더욱 깊이 이해하는 것으로만 성경 읽기를 끝내서는 안 된다. 바로 모든 창작물에서 저자의 의도와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처럼 성경을 읽을 때에도 성경의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통(通)”인 것이다.

조병호는 통(通)에 대해 설명하면서 다섯 가지 핵심적 요소를 제시하였다. 첫째, 성경은 얇은 책이라는 것이다. 여기서 얇다는 것은 책 그 자체의 두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일면 1,600여 페이지에 달하는 성경이 두꺼운 책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죄에 빠진 인간을 구원하시는 수많은 이야기를 다 적어 놓은 책이라고 생각했을 때 성경은 결코 두껍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조병호는 “성경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그 무한한 사랑과 진리를 담은 책의 두께치고는 무척 얇습니다. 그래서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습니다.”¹⁵라고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부분이 아닌 전체로 읽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그이 저서에서 “‘부분’을 분석적으로 보는 것과 함께, 각 부분이 어떻게 전체를 이루고 있는가에 대한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라고 말한다.”¹⁶ 둘째, 성경은 소리 내서 읽을 만한 유일한 책이라는 것이다. 세상에 많은 책들은 사람의 생각과 연구물에 의한 결과물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문자로 담아낸 책입니다. 그래서 조병호는 “성경은

¹³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12.

¹⁴ Ibid.

¹⁵ Ibid., 10.

¹⁶ 조병호, *통이다 랫츠 통* (서울: 통독원, 2009), 90.

문자로 읽고 음성으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소리 내어 읽으면 말씀이 더욱 생생하게 느껴지게 된다” 고 말했다. 셋째, 성경은 1년에 10번 읽을 만한 책이라는 것이다. 다른 대부분의 서적들은 학습이나 정보 습득에 그 최고의 목적을 둔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정보 습득을 뛰어넘어 우리의 전인적인 변화와 더불어 믿음을 자라게 한다. 그래서 조병호는 “성경은 1년에 10번 반복해서 읽어야 할 책이다”¹⁷라고 말했던 것이다. 넷째로 성경은 약1,500여년 동안 40여명의 저자에 의해 기록된 책이다. 시대가 다르고 다양한 저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에 관해 일관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은 성경이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책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병호는 “성경은 온 세상을 담고 있으며 각 시대마다 함께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그 흐름에 따라 통(通)으로 읽어야 한다. 또한 통시적(通時的; diachronic), 공시적(公示的; synchronic)¹⁸ 성경 읽기를 통(通)으로, 서양의 분석적, 동양의 직관적 해석을 통(通)으로 살펴 성경을 정경적이며 동시에 심정적으로 해석해야 한다”¹⁹고 말했다. 다섯째, 대부분의 서적들은 특정 독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어느 정도 독자의 층이 예상이 된다. 그러나 조병호는 “성경은 개인적, 가정적, 민족적, 모든 민족적인 책이다. 하나님께서 한 개인을 먹이시고,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용서하시고, 기도해 주신 내용부터 제국과 제사장 나라를 통해서 세계를 경영하신 이야기까지 담고 있다”²⁰고 말하고 있다. 그의 또 다른 저서에서도 “세계 역사와 성경 역사를 통으로, 제사장

¹⁷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0.

¹⁸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85,

¹⁹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1.

²⁰ Ibid.

나라와 제국 이야기를 통으로, 예언서와 역사서를 통으로 보려는 시도를 했다”²¹고 말하면서 더 깊은 성경 읽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통성경 길라잡이』의 구조

조병호는 『통성경 길라잡이』에서 기존의 장르별로 편집된 성경을 역사순으로 재배열하였다. 아래는 성경을 역사의 순서대로 배열한 실례이다.

구약성경을 역사 순으로 재배열²²하면 다음과 같다.

- ① 창세기 - 민수기 1~10장 10절 → 원역사 ~ 출애굽 1년
- ② 민수기 10장 11절 ~ 신명기, 시편90편, 여호수아 (1~12장→정복, 13~24장→분배)
- ③ 사시기, 룻기 → 선민의 불순종과 이방인의 순종 대립
- ④ 사무엘상, 시편 34, 54, 56, 57, 59, 142편, 역대상 1~10장 → 사무엘과 다윗의 기름부음
- ⑤ 사무엘하, 역대상 11~29장, 열왕기상 1~2장, 시편 3, 7, 18, 51, 61, 63편 → 다윗 왕정
- ⑥ 열왕기상 3~11장, 역대하 1~9장, 시편 72, 127편 → 솔로몬 왕정
- ⑦ 잠언, 아가, 전도서, 욥기 → 지혜 문학
- ⑧ 시편 → 성전에서 들려지던 예배 찬가
- ⑨ 열왕기상 12~22장, 열왕기하 1~14장, 역대하 10~ 25장 → 북 이스라엘 여로보암1세~ 여로보암 2세까지(북 이스라엘에서 엘리야, 엘리사가 사역)
- ⑩ 아모스, 호세아, 요나 → 북이스라엘 출신 사역자
- ⑪ 열왕기하 15~20장, 역대하 26~32장, 이사야, 미가 → 남 유다 이야기
- ⑫ 열왕기하 21~23장, 역대하 33~35장, 스바냐, 나훬, 하박국, 요엘 → 남 유다에게 회개 촉구
- ⑬ 열왕기하 24~25장, 역대하 36장, 예레미야, 오바댜, 애가 → 남 유다의 멸망
- ⑭ 다니엘, 에스겔 → 바벨론 포로시절
- ⑮ 에스라 1~4장, 학개, 스가랴
에스라 5~6장, 에스더서
에스라 7~10장, 시편 119편 → 바벨론 유수
- ⑯ 느헤미야, 말라기 → 성전복구와 참된 성전의 이야기

²¹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350.

²²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17.

이렇게 재배열된 구약성경을 통독하는 순서를 정리하면 <표20>과 같다.²³

<표20> 구약 성경통독 순서

원역사와 족장 시대	창1~11장 → 창12~50장
모세와 출애굽 시대①	출 → 레
모세와 출애굽 시대②	민 → 신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	수 → 샬 → 룻
왕정시대① 통일왕국 시대1	삼상 →(대상1~10장) → 삼하/(대상11~29장) →왕상1~2장
왕정시대② 통일왕국 시대2	왕상3~11장/(대하1~9장) → 잠 → 아 → 전 → 욥 → 시
왕정시대③ 분열왕국 시대	왕상12~22장/ 왕하1~14장/(대하10~25장) → 암 → 호 → 율 → 왕하15~20장/(대하26~32장) → 사 → 미
왕정시대④ 남유다 퇴락기	왕하21~23장/(대하33~35장) → 슝 → 합 → 나 → 욥 → 왕하24~25장/(대하36장) → 렘 → 애 → 욥
바벨론 포로 시대	겔 → 단
페르시아 시대	스1~4장 → 학 → 슝 → 스5~6장 → 예 → 스7~10장 → 느 → 말

신약성경을 역사순으로 재배열²⁴하면 다음과 같다.

- ① 4복음서 → 예수그리스도
- ② 사도행전 1~12장 → 열두 제자 이야기
- ③ 사도행전 13~18장22절 데살로니가 전, 후서, 갈라디아서 → 바울의 1~2차 전도여행
- ④ 사도행전 18장23절 ~ 19장, 고린도 전, 후서 → 바울의 3차 전도여행
- ⑤ 사도행전 20장 1~3절, 로마서 → 바울의 4차 전도여행
- ⑥ 사도행전 20장 4절 ~ 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 옥중서신

²³ Ibid., 19.

²⁴ Ibid., 22.

- ⑦ 디모데전서, 디도서 → 가택연금 2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바울이 쓴 서신
- ⑧ 디모데후서 → 네로 황제 박해 시 바울이 쓴 마지막 서신
- ⑨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 후서, 유다서, 요한서신, 계시록 → 일반서신과 묵시록

이렇게 재배열된 신약성경을 통독하는 순서는 <표21>과 같다.²⁵

<표21> 신약 성경통독 순서

예수님의 사역①	마
예수님의 사역②	막
예수님의 사역③	눅
예수님의 사역④	요
교회의 시작과 열두 사도들의 사역	행1~12장
사도 바울의 사역과 바울서신①	행13장~18:22 → 살전 → 살후 → 갈 → 행18:23~19장
사도 바울의 사역과 바울서신②	행20:1~6절 → 롬 → 행20:7~28장 → 엡 → 빌 → 골 → 몬 → 딤후 → 딤후
공동서신과 요한계시록	히 → 약 → 벰전 → 벰후 → 유 → 요일 → 요이 → 요삼 → 계

뿐만 아니라, 조병호는 『통성경 길라잡이』에서 “울창한 숲의 나무들 사이사이로 여행”²⁶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신구약 성경 전체를 시간적 흐름의 이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각 주제로 20마당 40과로 분류하였다.

²⁵ Ibid., 24.

²⁶ Ibid., 19.

<표22> 20마당 40과 - 구약

1마당: 하나님의 마음 원역사의 족장 시대	1과 <u>원역사</u> 2과 <u>족장사</u> 3과 <u>민족의 발아</u>	창세기 1~11장 창세기 12~36장 창세기 37~50장
2마당: 열방을 향한 꿈 모세와 출애굽 시대①	4과 <u>출애굽</u> 5과 <u>세계선교의 꿈</u> 6과 <u>거룩한 시민학교 교과서</u>	출애굽기 1~18장 출애굽기 19~40장 레위기
3마당: 만나세대 모세와 출애굽 시대②	7과 <u>만나세대의 성장</u> 8과 <u>모세의 고별 설교</u>	민수기 신명기
4마당: 신앙계승 가나안 정복 시대와 사사 시대	9과 <u>약속의 땅 입성</u> 10과 <u>사사들이 다스리던 암흑기</u> 11과 <u>교육의 성공 사례</u>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5마당: 천년모범 왕정시대① 통일왕국 시대1	12과 <u>미스바세대 탄생</u> 13과 <u>왕정의 시작</u> 14과 <u>하나님의 종 다윗</u>	사무엘상 1~7장 사무엘상 8~31장 사무엘하, 열왕기상1~2장
6마당: 마음과 지혜 왕정시대② 통일왕국 시대2	15과 <u>솔로몬과 시가서</u>	열왕기상3~11장 <u>잡언, 아가, 전도서, 욥기, 시편</u>
7마당: 사랑의 줄 사명의 줄 왕정시대③ 분열왕국 시대	16과 <u>남북 분열 왕조</u> 17과 <u>북이스라엘의 멸망</u>	열왕기상12~22장, 열왕기하1~14장, 아모스, 호세아, 요나 열왕기하15~20장, 이사야, 미가
8마당: 절망 앞에 선 희망 왕정 시대④ <u>남유다 퇴락기</u>	18과 <u>남유다의 쇠락</u> 19과 <u>잠간의 징계</u>	열왕기하21~23장 스바냐, 하박국, 나훔, 요엘 열왕기하24~25장 예레미야, 예레미야애가, 오바다, <u>역대상·하</u>
9마당: 징계, 희망의 디딤돌 바벨론 포로 시대	20과 <u>포로민 설득</u> 21과 <u>설득과 결과</u>	에스겔 다니엘
10마당: 재건공동체 페르시아 시대	22과 <u>성전 재건</u> 23과 <u>성벽 재건</u> 24과 <u>침묵</u>	에스라, 학개, 스가랴, 에스더 느헤미야 말라기

<표23> 20마당 40과 - 중간사

11마당: '어떻게'와 '이렇게'사이	25과 <u>신구약 중간사</u> 26과 <u>로마와 신약성경</u>	
----------------------	---	--

<표24> 20마당 40과 - 신약

12마당: 기쁨을 위한 탄생 예수님의 사역	27과 예수님의 탄생	마태복음
13마당: 한 영혼 사랑 예수님의 사역	28과 공생애 3년	마가복음
14마당: 용서를 향한 열정 예수님의 사역	29과 마지막 일주일	누가복음
15마당: 영광과 평화로의 초대 예수님의 사역	30과 십자가 승리	요한복음
16마당: 열리는 제자 시대 교회의 시작과 열두 사도들의 사역	31과 열리는 제자 시대	사도행전 1~12장
17마당: 경계를 넘어선 복음의 확장 사도바울의 사역과 바울서신①	32과 바울의 1차 전도여행 33과 바울의 2차 전도여행 34과 바울의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 13장~15:35 사도행전 15:36~18:22 데살로니가전·후서,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18:23~19장, 고린도전·후서
18마당: 준비된 면류관 남겨진 부탁 사도바울의 사역과 바울서신②	35과 바울의 예루살렘여행 36과 교회론과 사랑의 편지 37과 기독론과 기적의 편지 38과 믿음의 아들에게 남긴 편지	사도행전 20~26장, 로마서 사도행전 27~28장,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19마당: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공동서신	39과 선한 싸움을 위한 편지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전·후서, 유다서
20마당: 미리 견네받은 승리의 노래 요한계시록	40과 최후 승리	요한일·이·삼서, 요한계시록

소그룹에서 신자들은 위와 같이 각 주제별로 정리된 20마당 40과에 따라 40주 동안 매주 1과씩 정리된 내용을 읽고 더불어 각 주제에 해당하는 부분의 성경을 역사순으로 읽게 된다.

제 IV 장

소그룹에서 『통성경길라잡이』를 활용한 성경읽기 실행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한 성경읽기 과정

본 교회에서 기존에 정통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던 소그룹 활동인 속회에 조병호의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하여 새롭게 성경 통독을 적용하였다. 전통적인 속회예배 시간에 따로 본문을 채택하지 않고 제 III 장에서 알아 본 바와 같이 『통성경 길라잡이』의 40과를 소그룹에 적용 진행 하였다. 이를 위해 40주 동안 매주 한 과씩 책의 정리 된 내용을 읽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성경 통독과 병행 할 수 있도록 40주 동안 매 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성경 일독 학교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11주차에 새롭게 시도하는 속회 예배의 실례이다.¹

- ① 주 제: 제11과 교육의 성공 사례
- ② 찬 송: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 ③ 기 도: 말은 이
- ④ 오늘의 말씀: 롯기
- ⑤ 말씀나누기:
 - ▶ 롯기를 읽는 센스: 롯기는 사막 한가운데서 만난 시원한 오아시스 같은 이야기입니다. 롯기의 주인공들은 나오미와 롯, 그리고 보아스입니다. -중략-
 - ▶ Tong Point: 아름다운 법의 구현 - 롯기에는 공동체 안에 닥친 어려움을 하나님의 율법에 의거하여 해결해가는 과정이 아름다운 이야기로 펼쳐집니다. 왕이 없었음에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인해 이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1. 나오미의 귀향과 롯의 선택: 롯1장

¹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108-113.

사사 시대에 흉년이 듭니다. 흉년은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들레헬 땅에 살던 한 가족, 즉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들의 두 아들은 하나님의 징계를 피해 모압 땅으로 이주하였고, 아들들은 이방인인 모압 여인들과 결혼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흉년은 잠시 피해 도망할 수 있었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모압 땅에서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잃은 나오미는 깊은 생각 끝에, 결국 자신의 의지해야 할 분은 하나님뿐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압에서의 생활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그 결심을 며느리들에게 밝힙니다.

“나는 고국으로 돌아가겠으니, 너희는 친절으로 돌아가거라.” 친절으로 돌아가서 새 삶을 시작하라고 이야기 합니다. 함께 한참을 울던 며느리 오르바는 결국 친절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다른 며느리 룯은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따라가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니 오히려 자신이 시어머니를 책임져야 할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 예상되는데도, 룯은 어머니를 따르겠노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룯의 말(룯1:16-17)을 통해 보건대, 룯은 늙은 시어머니를 혼자 두고 떠날 수 없었던 효성 깊은 여인이었던 동시에, 그 동안 가족이 되어 함께 사는 사이, 시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 할고 믿었던 믿음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룯은 나오미의 귀향 길에 동행하게 됩니다.

2. 룯과 보아스의 만남: 룯2장

그토록 그리웠던 고향에 돌아오긴 했지만, 당장 먹을 양식이 없었습니다. 나오미가 왜 이런 상황에 처했는지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10여 년 전, 베들레헬에 흉년이 들었을 때, 자신들이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땅의 경작권을 팔고 그 돈을 챙겨서 모압으로 이사를 갔던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수아 시대에 각 지파 별로 땅을 분배 받은 이후 그 땅에서 조상 대대로 살고 있었는데, 그 땅은 희년(50년)을 기준으로 하여 ‘경작권’ 즉 농사지을 수 있는 권리만을 사고 팔 수 있었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 자체는 사고 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고, 땅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공평하게, 영속적인 선물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땅의 소유권을 사고 팔으로써 한 지파의 땅이 다른 지파의 것으로 옮겨지는 것을 금지하셨고, 이로써 공동체 내의 빈부격차가 공정되는 것 또한 방지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경작권’ 말 사고 팔 수 있었는데, 이 또한 희년이 되면 원래 주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희년까지 남은 연수를 값으로 계산하여 자기 땅의 경작권을 팔고 모압으로 갔던 것이었는데, 아직 희년이 돌아오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남아 있는 터라, 자신에게는 경작할 땅이 없는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팔았던 경작권을 다시 사와야 하는데, 그런 형편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며느리 룯이 자신과 시어머니의 먹을 거리를 찾아 다른 사람들

의 밭으로 나서게 됩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남의 밭에 떨어진 이삭을 주우러 간 것입니다. 룯이 그렇게 밭걸음을 옮겨 다다른 곳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습니다.

이 장면에서 보아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보아스는 자기 밭의 추수꾼들에게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합니다. 그 축복의 인사를 들은 추수꾼들 또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이렇게 아름다운 노사관계를 보신적이 있습니까? 게다가 그 당시가 사사 시대임을 생각한다면, 이 모습을 참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아스는 이방 여인인 룯을 배려해줍니다. 남편이 죽고 난 뒤 홀로 남은 시어머니를 모시는 착한 여인이라는 것을 소문으로 들어 알고 있다면서 룯에게 격려의 말을 건넵니다(룯2:12). 또한 룯에게 떡도 건네고, 볍은 곡식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소년들에게 곡식을 일부러 뽑아서 버려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네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네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네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레19:9-10)라는 레위기의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는 모습입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실천하는 거구나!’ 라는 감탄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모신 두 사랑, 룯과 보아스의 만남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3. 룯과 보아스의 결혼: 룯3장~4:17

나오미와 룯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가 보리 추수를 시작할 때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룯1:22). 보통 2주 정도가 걸리는 추수 기간이 끝나갈 무렵, 시어머니 나오미가 룯을 불러, 보아스가 자기 집안의 기업을 무를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기업을 무른다는 것은 형제가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죽은 형제의 미망인과 결혼을 하여 그 가문의 후사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계대결혼’ 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기업 무를 자의 또 하나의 의무는 어떤 사람이 가난하여 생계를 위해 자신의 토지 경작권을 팔았을 때, 그 판 것을 무를 사람이 되어서 산 사람에게 그 값을 대신 치르고 동족의 재산을 되찾아주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이 의무를 이행해줄 적합자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룯은 시어머니의 말대로 목욕하고 새 옷을 입은 후, 보아스의 밭으로 갑니다. 보아스가 밤에 천막에 들어가 눕는데 뭔가 밭에 닿습니다. 깜짝 놀라 일어나 보아스에게 룯이 가냘픈 목소리로 “나는 당신의 여종 룯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무를 자가 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밤중에 두려운 마음으로 자기 침실로 찾아온 룯에게 “내 딸아 여호와께서 네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라고 하며 위로해 줍니다. 그리고 나오미 가족의 기업 무를 자로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

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보아스와 롯은 그날 밤 아무일 없이 지내고, 롯은 새벽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몰래 천막에서 나갑니다.

다음 날, 보아스는 성읍 장로들을 부르고, 자신보다 엘리멜렉과 더 가까운 친족을 불러서 나오미의 기업을 물려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 못하겠다고 물러서고, 이 일은 보아스의 순위로 넘어옵니다. 보아스는 그 책임을 받아들여, 롯을 자기 아내로 삼습니다. 하나님이 기쁨과 이웃의 기쁨을 위해 살았던 보아스와 롯, 이들의 인생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4. 보아스의 족보: 롯4:18~22

보아스가 살던 사사 시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다른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며 살고 있습니다. 첫째는 물론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로는 그의 족보를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볼 수 있습니다.

롯기의 맨 마지막 부분에 보아스의 족보가 나옵니다.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었습니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마태복음 1장5절을 찾아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롯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살몬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바로 라합입니다, 여리고 성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었던 믿음의 여인 라합 말입니다.

라합. 그는 역사를 보는 안목을 가지고 있던 여인, 하나님을 볼 줄 아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이 다 죽어갈 쟈, 그 여인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얻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 라합이 아들 보아스를 키우면서 무엇을 가장 열심히 가르쳤겠습니까? 무엇보다 자기 일생 최대의 경험, 즉 여리고 성이 순식간에 무너지는 틈바구니 속에서 자기가 생명을 건질 수 있었던 이유를 들려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외우고 실천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야말로 ‘신앙교육의 빛나는 성공 사례’로 꼽힐 만한 아름다운 가정입니다.

이렇게 롯기에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책임을 다한 보아스의 순종과 믿음, 아픈 세월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난 나오미, 그리고 생명을 다해 하나님과 시어머니를 믿고 따른 롯의 삶이 아름답게 그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단지 제약이 아니라 진정 인간의 삶과 공동체의 수준을 가장 아름답고 존귀하게 가꿔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기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준 롯기 이야기는 과연 사사 시대의 한 줄기 시원한 생수 같습니다.

▶ 이과의 내용을 통(通)이야기(Tong story)로 적어 보세요.

▶ 이 과의 내용을 자녀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통성기도(Tongsung Gido)합시다. :

-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20)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하라 (21)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신11:19-21)

-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15)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딤후3:14-15)

⑥ 헌금/ 찬송: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⑦ 마침기도/ 주님의 기도

⑧ 친교의 시간 및 다과

이와 병행하여 40주 동안 매 주 목요일 저녁 8시에 모여 2시간 동안 성경 일독학교를 진행하였다. 다음은 11주차 성경 일독학교의 진행 실례이다.

① 주 제: 제11과 교육의 성공 사례

② 찬 송: 508장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③ 기 도: 말은 이

④ 오늘의 말씀: 룻기1장~룻4장

⑤ 말씀나누기: 통(通)박사 조병호가 낭독한 1년 10번 역사순 성경 듣기²

⑥ 마침기도/ 주님의 기도

⑦ 귀가

이상과 같이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하여 속회 예배를 드리고, 이와 병행하여 성경 일독 학교를 1년 동안 40주에 걸쳐서 진행하였다. 이것을 토대로 1년간 소그룹 활동의 일정을 정하고 실행할 수 있었다. 이 프로젝트를 2015년 1월에서 12월까지 12개월 동안 실행하였으며 그 대상으로는 소그룹 및 성경 일독 학교 참여자는 12명으로 성인 8명, 10대 청소년 5명이 성인 2개 소그룹 모듬과 청소년 1개 소그룹 모듬을 구성하여 실행하였다.

² 구글의 android 및 애플의 ios 운영체제의 스마트 폰 Application으로 조병호박사가 신자들이 성경을 1년 10독을 위해 듣기 위해 직접 낭독한 성경을 1.7배속으로 들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Application이다.

상담 및 설문분석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한 성경 읽기 실행 이전의 소그룹 활동의 문제점

이 연구를 실행하기 이전에 연구자는 성경 읽기에 대해 회중들에게 강요만 하였을 뿐이지 성경 전체를 효과적으로 이해시키고 가르치는데 부족했다는 반성을 하게 된다. 최근 5년간 각 소그룹에 속회 공과를 보급하고 스스로 실행하도록 방치하였을 뿐 그 효과와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소홀하였다. 실제로 상담의 결과 지난 5년간 속회 예배를 통해 배우고 익혔던 성경 말씀이나 성경 이야기 중에 기억에 남는 것을 물었을 때 거의 대답하지 못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 및 수요 예배 등 공 예배 때 들었던 설교의 내용과 제목, 성경 본문에 대해서는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다. 특히 새신자의 경우 처음 교회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한 전무한 상태에서 교리, 명제, 교훈, 개념 정리 및 원리, 선교 등 모든 것에 낯선 단어와 내용을 가르치고 선포하면서 그들이 듣고 깨달으며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신자들에게는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 되고 있느냐?는 물음에도 그 동안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새신자와 동일한 문제점을 갖고 있음을 상담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통성경 길라잡이』를 통해 성경읽기가 소그룹 활동에 주는 효과 분석

성경 통독 방법과 초점의 변화

한국 초대 교회의 신자들은 독특한 성경 읽기 방식을 가지고 있었다.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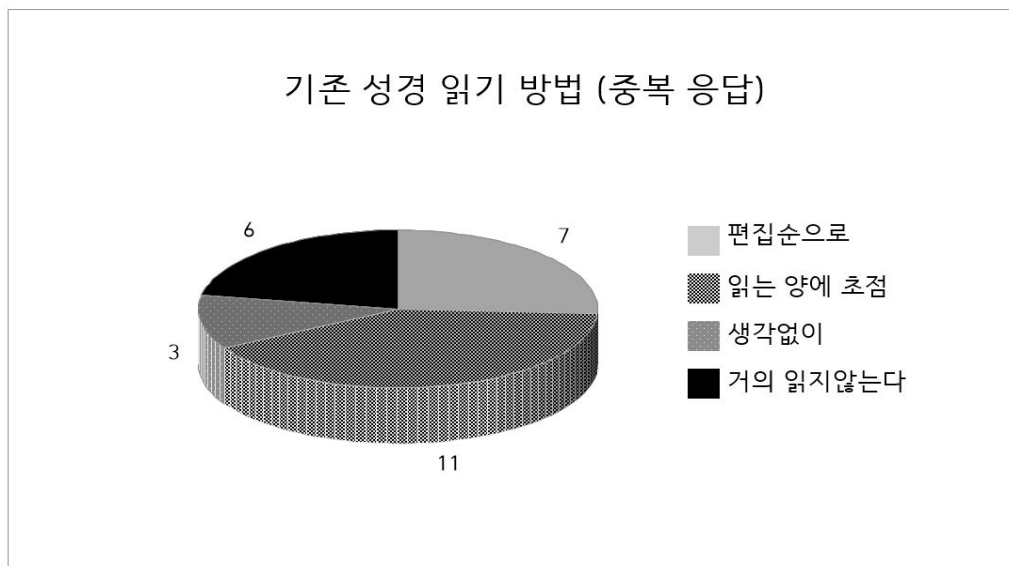
초대교회 신자들은 성경을 눈으로만 보지 않고 삶으로 읽었다. 한국 초대 교회의

³ 이덕주, *한국교회 처음이야기*, 102-108.

신자들은 성경을 눈과 입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가슴과 몸으로 읽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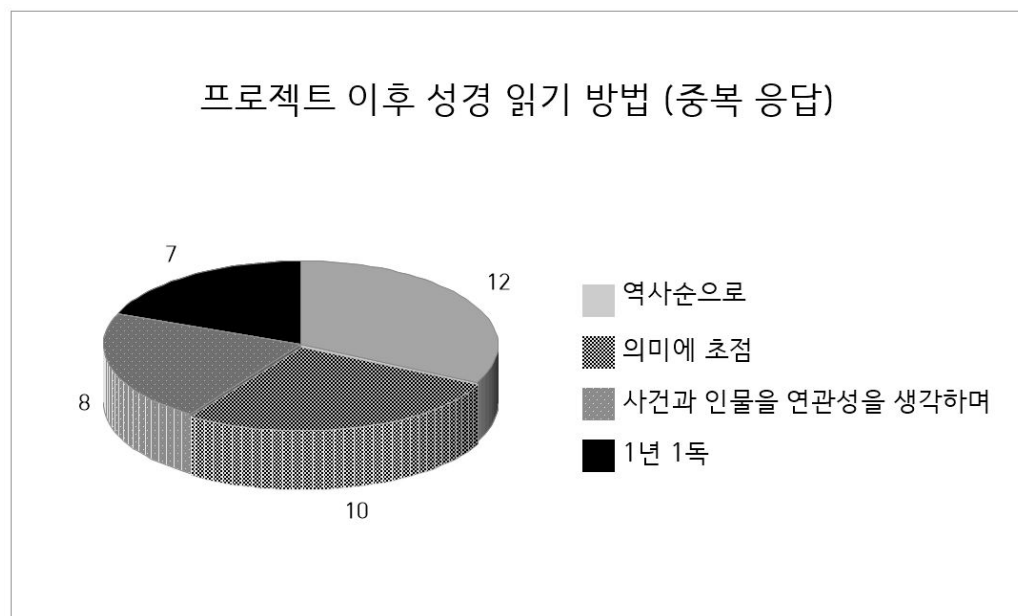
나무십자가를 만들어 등에 지고 천리 길을 걸어온 신자, 빛 문서를 태운 부자, 종 문서를 태운 과부, 이러한 성경읽기 방식이 현대에 와서 소그룹 내에서 점점 변질 되면서 본 교회 신자들도 아래의 <표 25> 와 같은 방식으로 성경 읽기 방식이 달라졌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실행한 후에 신자들의 성경읽기 방법에는 큰 변화가 나타났다. 바로 <표 26>와 같이 성경읽기 방법이 편집순에서 역사순으로, 읽는 양에서 의미에 초점을 두는 방식으로, 생각 없이 읽다가 성경의 사건과 인물들의 연관성을 생각하면서, 거의 읽지 않던 성경을 1년에 1독하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 상담을 통해 성경을 거의 읽지 않다가 1년 1독 하게 된 이유를 물으니 “재미없던 성경의 이야기들이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다 보니 재미와 흥미가 생기면서 성경을 가까이 두고 읽게 되었다”⁴고 12명 중 7명이 대답하였다.

<표25> 기존의 성경 읽기 방법(중복응답)



⁴ 강민화, 김선희 이자연, 이예순, 이정희, 김남윤, 강세인(이상 7명)

<표26> 프로젝트 이후 성경 읽기 방법(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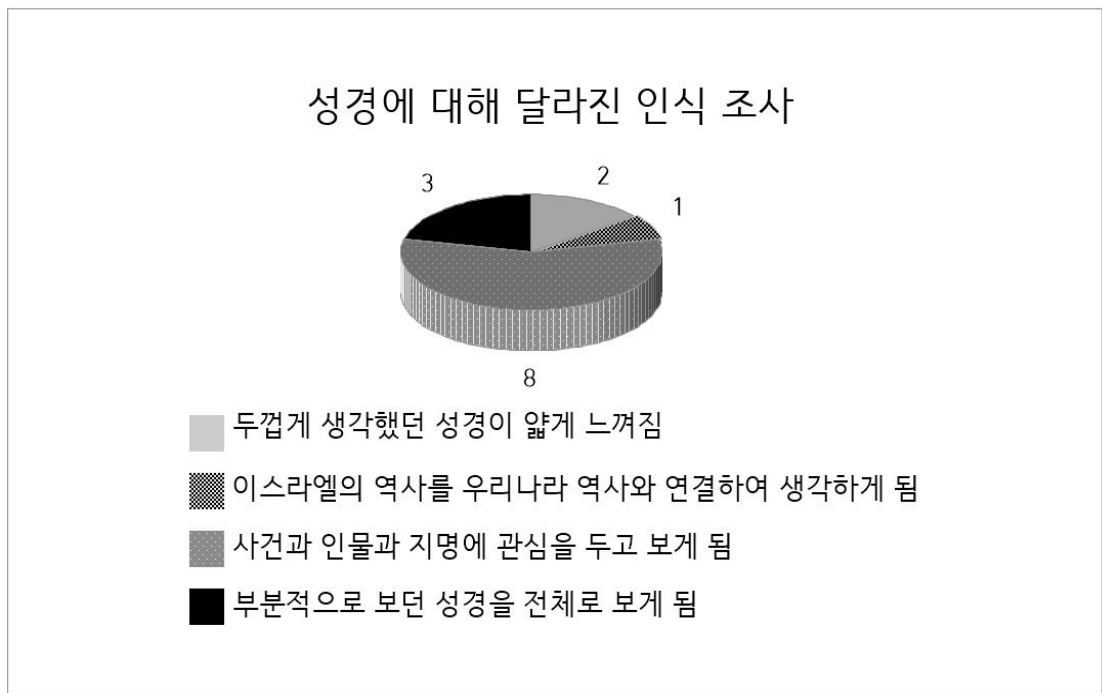
한 나라의 이야기를 모든 나라의 역사로 이해

연구자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자들이 성경 속에서 자신을 보고, 가정으로 보고, 나라를 보면서 열방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성경적 깊이를 갖기를 원하였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를 2015년 1회 실행함으로 연구자가 바라는 결과를 도출하는 데에는 시간적으로 일회성으로는 부족하다는 결과를 얻게 되었다.

<표2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나라 역사와 연결하여 보는 시각의 변화를 갖게 된 신자는 불과 1명에 그쳤다. 그렇다 하더라도 희망적인 것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신자들이 성경을 보는 시각에 변화를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점이다. 기존의 소그룹 활동과는 생소한 유형과 새로운 성경 읽기 과정을 경험한 그룹원들에게 단 1회로 모든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고 분석한다. 이는 개인의 신앙적, 지식적, 이해력의 차이에서 오는 속도의 문제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프로젝트의 반복을 통해 기대한 효과를 충분히 가져 올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표27> 프로젝트 이후 성경에 대해 달라진 인식 조사(중복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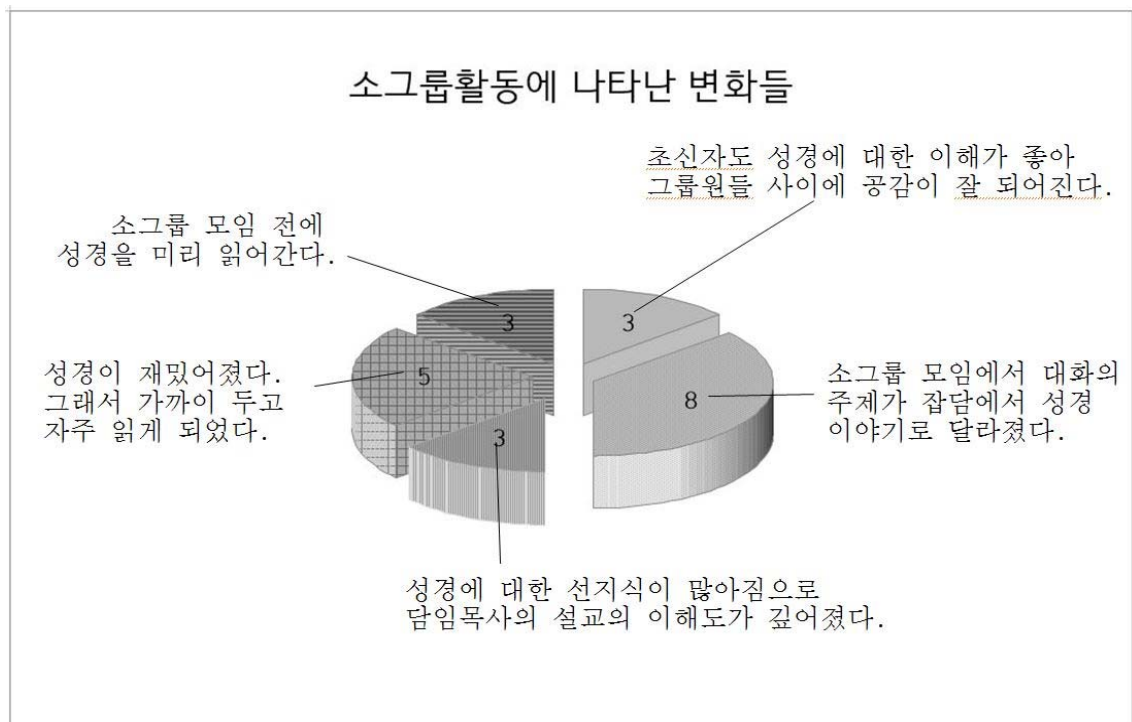
<표27>과 같이 프로젝트 이후 성경에 대해 달라진 인식 조사에서 보듯이 성경에 대해 갖고 있던 편견들은 많이 깨지고 기대했던 결과들을 가져오기는 하였다. 그러나 Ⅲ장에서 소개하였던 조병호의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하여 성경 읽기를 하였을 때 기대하는 핵심 요소 5가지가 프로젝트 실행 대상자들에게 충분히 효과로 나타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고무적인 것은 <표27>에서 보여진 바와 같이 효과가 전무하지 않고 설문에 기대했던 대답을 누군가가 했다는 점이다. 이는 개인의 영적, 지적 수준에 따라 이해하는 시간적 차이는 있을 뿐 충분히 기대한

효과들이 점차 신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 하나님 마음 읽고 사명공동체로의 결단

만일, 신자가 성경을 1년에 10독 100독을 하였지만 삶으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는 것은 참으로 무익할 것이다.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⁵라 말씀하고 있다. 즉, 성경 읽기는 우리의 삶의 변화로 나타나야 한다. <표 28>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소그룹 활동에 나타난 변화들의 조사이다.

<표28> 소그룹 활동에 나타난 변화들(중복응답)



⁵ 딤후 3:16-17.

성경적, 심리적 공감의 이루어지는 소그룹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프로젝트를 통한 소그룹에서 일어난 가장 큰 변화는 이전에 모이기에 급급하고 친교나 사교모임으로 전락했던 소그룹 모임에 성경이 대화의 주제가 되고, 또 공감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기존 신자들이나 각 소그룹의 지도자들은 새신자들에게 성경에 대한 질문과 삶에 적용에 대한 물음들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한다. 그렇지만 기존 신자들뿐만 아니라 소그룹의 지도자들조차도 성경에 대해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분명하지 않으니 상담과 지도에 대한 접근이 성경적이지 못하고 오히려 심리학적 내지는 자신의 경험으로 접근 하는 방법을 취하는 경우들이 많았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를 실행하고 나서 성경을 일독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가시는 개인의 이야기, 가정의 이야기, 나라의 이야기, 국가의 이야기를 깨닫게 됨으로 대화의 주제가 성경적이고, 신앙적이게 달라졌으며, 무엇보다도 성경에 등장하는 개인의 이야기에 자신을 투영 시켜 자신을 되돌아 볼 줄 알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서로 공감하며 위로 받고 위로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성경 이야기에 대한 풍요로운 선지식으로 공 예배의 목회자의 설교 이해도가 높아진 소그룹

이 프로젝트를 통해 비교적 성경 속의 이야기들에 대해 선지식이 많아짐에 따라 공 예배 때 담임목사의 설교를 이해하는데 도움 주었다. 일례로 연구자가 설교 중에 솔로몬의 뒤를 이어 남유다 왕국의 왕이 된 아들을 ‘여로보암’ 이라고 말하는 실수를 하게 되었다. 예배를 마치고 한 신도가 찾아와 물었다 “목사님 남유다 왕국의 초대 왕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 이 아닌가요?” 한 신자가 찾아와 말하기

전까지 연구자조차도 잘 못 설교한 줄 모르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 이 사건을 목사에 대한 권위의 도전이나 불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설교를 들으면서 솔로몬이 누구이며, 그의 아들이 어떤 인물이며 왜? 분열 왕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이해가 이미 이 신자에게는 있었다는 증거인 셈이다. 또 한 사건으로는 연구자가 남유다의 8대왕 요아스를 요시야라 잘 못 설교하기를 “제사장 여호야다의 가르침에 따라 요시야왕이 개혁함으로 우상을 멸하고 훼손된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열심을 내었습니다” 라 하였다. 이에 한 신자가 와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활동하던 때의 왕은 남유다의 요아스가 아니냐고 조심스럽게 묻는 것이다. 이미 제사장 및 선지자들의 활동에 대한 선지식이 이 신자에게는 있었던 것이다. 이를 연구자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그만큼 기존의 성경 읽기나 소그룹 활동에서는 이루어 지지 않았던 성경에 대한 이해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에 대한 이해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함으로 더욱 깊어지고 선지식이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한 사건이라 하겠다.

성경에 흥미를 가지고 가까이 두고 읽는 소그룹

연구자가 어려서 들던 말 중에서 “ ‘후탁신자’ 가 교회에 많다” 는 이야기가 있다. 성경책을 탁자나 선반 위에 올려 놓고 있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에 가기 전에 일주일 동안 성경의 위의 쌓여 있던 먼지를 털기 위해 ‘후’ 하고 바람을 불고 ‘탁’ 하면서 손으로 치는 모습을 비아냥 거리며 하는 말이었다. 그만큼 기존 신자들이 성경을 멀리 하였다는 것이다. 게다가 오늘날 기술의 발전으로 손안에 성경이 스마트폰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본 교회의 대부분의 젊은이들은 종이 성경이 아닌 스마트폰의 전자 성경을 예배 때 활용하다. 그러니 주중에 성경 읽기를 한다는

자체는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프로젝트를 실행 한 후 신자들은 성경을 읽기 위해 종이 성경을 손에 쥐거나 스마트폰의 어플을 실행하여 전자성경을 보는 시간들이 증가하였다고 종종 말한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문을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 바로 성경을 읽을수록 재미있고 사건과 인물들에 대해 흥미가 생겼다는 것이다.

제 V 장

요약 및 결론

연구의 요약

I 장의 서론에서 한국교회의 부흥을 이끌었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던 교회 내 소그룹들이 그 역할이 변질 및 변형되면서 오히려 교회 부흥과 신자들의 영적, 인격적 성장에 저해가 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반성을 하면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소그룹이 초대 교회와 한국 교회의 초기 소그룹의 모습에서 보였던 교제나 친교 단체의 성격에서 벗어나 성경으로 돌아가되 역사순으로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모든 말씀을 균형 있게 배우고 익혀 또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는 일에 집중해야 함을 주장한다. 결국 이러한 소그룹 내의 올바른 성경 교육을 이루기 위해서는 조병호의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하여 역사순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 만이 가능하다고 제안 한다.

II 장 소그룹의 이해에서는 소그룹에 대한 정의와 소그룹의 성서적 이해를 통해 성경 속에 나타난 소그룹 등을 소개했다. 이와 함께 한국 교회 내에 소그룹 활동의 침체를 경험하면서 각 교회들 마다 새로운 형태의 소그룹 활동들을 개발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그래서 새롭게 시도된 소그룹 활동들을 소개하고 각 소그룹의 방법과 형태 속에서 긍정적인 평가 부분을 조명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소그룹 운영 형태에서 드러나는 각자의 단점들을 소개하였다. 그 단점들 속에서 몇 가지 공통된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고 그 요소들이 소그룹 활동의 활성화를

방해하고 있음을 연구하였다. 이런 소그룹 활동의 활성화에 방해를 주는 요소들이 본 교회에서도 드러나고 있었으며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시도로 소그룹에서 ‘부분적이고 편향, 편중적인’ 성경읽기에서 『통성경 길라잡이』를 통한 역사순으로 재배열된 성경읽기를 전환하였다.

역사순으로 재배열된 성경 읽기는 소그룹 내에서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는 가장 적합한 방법이다. 성경은 개념과 명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또한 별개의 이야기들의 모음집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역사 이야기’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을 때에 기존의 방법이었던 편집순이나 필요선택 내지는 기호에 맞추어 읽을 것이 아니라 부분을 전체로 보는 하나의 역사로 보는 통(通)으로 읽어야만 하는 것이다.

III장에서는 소그룹의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사용하게 된 통(通)이란 무엇이며 그 통(通)으로 저술된 『통성경 길라잡이』가 무엇인지에 대해 비교적 자세히 소개하고 그 실행 방법을 소개하였다.

IV장에서는 II장에서 살펴본 기존의 소그룹 활동에 있어서의 장단점을 바탕으로 2015년 1년간 총 40주에 걸쳐서 소그룹 내에서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한 성경읽기를 진행하였다. 선별된 성인 신자 그룹 2개와 10대 그룹 1개를 선정하였고, 이들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평가하기 위해 설문조사와 토론회 및 상담을 하였다. 실시한 프로젝트의 실행 이후, 대상자들의 반응도를 조사하였다. 총 2가지 주제 10문항으로 된 설문조사의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토론회 및 상담을 통해 설문에 기록하지 못한 부분들까지 분석하였다. 그 결과 소그룹에서 그룹원들이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하여 성경읽기를 하였을 때 친교 및 사교적 모임에서 성경에 집중하게 되는 외적 효과가 있었으며, 성경을 역사의 흐름으로 파악하게 하며 성경의 중요한 사건들과 인물들, 그리고 주제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는 기존에 성경을 읽을 때에는 양적 실적에 목표를 두고 통독하였지만 프로젝트 이후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하며 읽게 되는 변화가 있었다. 그로 인해 형식적인 모임이었던 소그룹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즐겁게 모이게 하는 중심이 되었다. 무엇보다도 소그룹 내에서 성경에 대한 깊은 이해와 양적 지식은 공 예배 시 설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데 효과를 주었다.

연구의 결론

어떠한 공동체인 간에 그 공동체의 존재 목적을 상실하면 변질되게 되어 있다. 교회 내의 소그룹의 활동도 성경 중심이 되지 않는다면 앞에서 밝힌 영국감리교회 역사에서처럼 소그룹이 사교클럽의 속회¹로 바뀌게 되고 말 것이다. 소그룹의 교회사적 흐름과 한국 교회에서 시도된 여러 가지 소그룹 활동들을 보면 오늘날 교회 내의 소그룹의 활동이 활성화 되는데 있어서 방해하는 문제점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연구자는 조병호의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하여 소그룹 내에 기존의 편집순이 아닌 역사순 성경읽기가 미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면서 역사순으로 바르게 성경을 읽고 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는 이 방법이 한국 교회의 소그룹을 살리고 교회에 부흥과 성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라고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주장은 지난 1년간 본 교회 소그룹에서 나타난 그룹원들의 변화를 통하여 증명할 수 있다. 단,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연구가 1년이라는 기간에만 실행 하였다는 점이다. 1년에 1회를 통해서도 많은 변화와 효과들이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가 바라는 수준까지는

¹ 김흥기, *감리교회사*, 266.

상당히 미비한 점도 있었다. 그래서 1년간 성경 일독으로 이 프로젝트는 종료되었지만 통계와 상담을 바탕으로 운영 방법에 수정 보완하여 지속적으로 실행할 것이다. 교회 내의 소그룹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는 목회자들에게 소그룹 활성화뿐만 아니라 신자들간의 성경적 공감을 통한 위로의 관계 및 올바른 성경적 신앙 상담, 목회자의 설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 주는 효과가 있는 『통성경 길라잡이』를 활용한 성경 읽기를 소그룹 내에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부록 I . 꿈이있는교회 속회 예배 및 성경통독에 관한 설문지

작성자: 강동구 목사

직분: 연령대:

A. 기존 성경통독 방법과 비교 조사

1. 기존에 성경통독할 때의 방법은 무엇이었으며, 통독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습니까?

2. 속회에서 『통성경 길라잡이』 통해 성경통독할 때, 기존의 성경통독과 달라진 방법은 무엇이며? 통독에 초점의 변화는 있었습니까?

3. 속회에서 『통성경 길라잡이』 통해 성경통독할 때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4. 속회에서 『통성경 길라잡이』 통해 성경통독할 때, 어떤 점이 성경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5. 속회에서 『통성경 길라잡이』 통해 성경통독할 때, 시대적 상황과 역사적 맥락을 아는데 효과적이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점에서 효과적이었습니까?

6. 속회에서 『통성경 길라잡이』 통해 성경통독할 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다른 모든 나라들의 역사와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되었습니까?

B. 성경통독을 통한 변화에 대한 조사

1. 속회에서 『통성경 길라잡이』 통해 성경통독할 때, 성경의 이야기가 자신에게 어떤 목표를 갖게 하였습니까?

2. 속회에서 『통성경 길라잡이』 통해 성경통독할 때, 성경의 이야기를 이해하는데 있어서의 변화는 무엇입니까?

3. 속회에서 『통성경 길라잡이』 통해 성경통독할 때, 당신의 변화된 행동은 무엇입니까?

4. 속회에서 『통성경 길라잡이』 통해 성경통독할 때 지금의 소그룹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부록 Ⅱ. 2011년도 속회 공과 본문과 제목 - 총주제: “역경을 이기는 그리스도인”²

- 01주차: 0107-창2:4-7_하나님의 생기로 충만하라
- 02주차: 0114-출3:1-5_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
- 03주차: 0121-수1:1-9_강하고 담대하라
- 04주차: 0128-삿6:11-16_생활 속의 우상을 제거하라
- 05주차: 0204-창6:5-9_의로운 삶
- 06주차: 0211-창26:1-25_복된 자녀로 사는 인생
- 07주차: 0218-삼상3:19-20_한결같은 하나님의 사람
- 08주차: 0225-학2:1-9_비전과 열정
- 09주차: 0304-룻1:6-18_올바른 선택
- 10주차: 0311-삿13:1-7_죄와의 결별 선언
- 11주차: 0318-단1:8-16_전진하는 믿음의 삶
- 12주차: 0325-욥23:10-14_역경을 이긴 승리의 사람
- 13주차: 0401-요20:24-29_부활을 확신하라
- 14주차: 0408-느1:4-11_기도로 일을 성취하는 사람
- 15주차: 0415-스9:5-10_회개로 역경을 이기라
- 16주차: 0422-행7:54-60_주님의 마음을 닮는 사람
- 17주차: 0429-나3:1-7_세상의 유혹에서 돌아서라
- 18주차: 0506-삼상3:10-14_믿음을 유산으로 남기는 부모

²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1년 속회공과 역경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 19주차: 0513-왕하2:1-9_영적 능력을 사모하라
- 20주차: 0520-창2:18-25_서로 돕는 아름다운 부부
- 21주차: 0527-창25:19-34_갈등에서 평화로
- 22주차: 0603-왕하19:14-19_기도로 국가를 살린 사람
- 23주차: 0610-대하7:11-18_솔로몬의 지혜로운 기도
- 24주차: 0617-삼하6:12-23_하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
- 25주차: 0624-에4:10-17_민족을 위한 결단과 기도
- 26주차: 0701-삿4:1-10_신분의 장벽을 넘어서는 그리스도인
- 27주차: 0708-미가6:6-8_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
- 28주차: 0715-삼상15:17-23_교만과 불순종의 위험
- 29주차: 0722-창12:1-5_순종의 사람
- 30주차: 0729-행16:1-5_칭찬 받는 그리스도인
- 31주차: 0805-호6:1-3_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사람
- 32주차: 0812-행9:26-30_일꾼을 세우는 지도자
- 33주차: 0819-삼상19:1-9_성도의 우정과 용기
- 34주차: 0826-합3:17-19_희망을 노래하는 사람
- 35주차: 0902-몬1:1-7_사랑과 믿음의 사람
- 36주차: 0909-행14:11-18_달려갈 길 다 마치고
- 37주차: 0916_욘1:1-3_영혼구원의 열정
- 38주차: 0923-수14:6-12_꿈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
- 39주차: 0930-렘1:4-10_역경 속에서의 예레미야
- 40주차: 1007-사6:1-8_하나님의 일을 사모한 사람
- 41주차: 1014-요1:35-42_겸손의 미덕

- 42주차: 1021-행3:1-10_능력으로 복음을 전한 예수님의 사람
- 43주차: 1028-눅1:15-17_주의 길을 예비하라
- 44주차: 1104-창4:1-7;히11:1-4_아벨의 감사신앙
- 45주차: 1111-왕상18:30-40_환경을 변화시킨 큰 믿음의 사람
- 46주차: 1118-암5:21-27_하나님의 공의를 지키는 신앙인
- 47주차: 1125-창13:7-13_내려놓는 삶
- 48주차: 1202-욥1:15-21_심판의 때를 기억하며 살라
- 49주차: 1209-창5:21-24_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 50주차: 1216-슌3:14-17_회개로 얻는 하나님의 구원
- 51주차: 1223-행1:15-26_복된 자리를 떠나지 말라
- 52주차: 1230-창37:1-11_새로운 꿈을 꾸는 하나님의 사람

2012년도 속회 공과 본문과 제목 - 총주제: “변화와 성장으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³

- 01주차: 0106-창1:26-31_하나님의 청지기
- 02주차: 0113-창24:1-9_복을 누리는 가정
- 03주차: 0120-출7:1-7_하나님의 대언자
- 04주차: 0127-출18:13-23_돕는 자들
- 05주차: 0203-삿6:11-16_일꾼을 세우시는 하나님
- 06주차: 0210-삼상9:15-21_지도자의 덕목

³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2속회공과 변화와 성장으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

- 07주차: 0217-왕상19:1-8_승리하는 일꾼
- 08주차: 0224-스3:8-13_성전을 재건하는 사람들
- 09주차: 0302-사6:6-13_하나님을 만난 사람
- 10주차: 0309-렘1:4-10_하나님의 약속
- 11주차: 0316-욘4:5-11_인간의 본성
- 12주차: 0323-합1:12-2:3_하나님의 공의
- 13주차: 0330-학1:7-15_순종의 역사
- 14주차: 0406-마4:17-22_제자의 조건
- 15주차: 0413-마9:9-13_부활을 통한 교훈
- 16주차: 0420-마26:6-13_복음의 향기
- 17주차: 0427-막2:1-12_진정한 친구
- 18주차: 0504-막7:24-30_한계를 뛰어넘는 사람
- 19주차: 0511-막10:35-45_섬김의 지도력
- 20주차: 0518-막10:46-52_치유하는 능력
- 21주차: 0525-막12:41-44_하나님의 기준
- 22주차: 0601-눅6:12-19_기도로 세운 일꾼들
- 23주차: 0608-눅8:1-3_여성 제자들
- 24주차: 0615-눅10:30-37_이웃 사랑
- 25주차: 0622-눅19:1-10_구원의 과정
- 26주차: 0629-요1:43-51_예수님의 제자 빌립
- 27주차: 0706-창37:12-17_그리스도인의 덕목
- 28주차: 0713-출1:15-21_생명 사랑
- 29주차: 0720_수1:1-9_하나님의 도우심

- 30주차: 0727_룻2:8-13_효를 실천하는 하나님의 일꾼
- 31주차: 0803_삼상1:21-28_그리스도인의 양육관
- 32주차: 0810_삼상16:6-13_기름 부음 받은 사람
- 33주차: 0817_삼하24:18-25_바치는 삶
- 34주차: 0824_왕상3:4-15_지혜의 회복
- 35주차: 0831_왕하2:1-11_성령 충만
- 36주차: 0907_느2:1-10_나라 사랑
- 37주차: 0914_에4:12-17_민족을 위한 기도
- 38주차: 0921_욥1:1-8_하나님의 자량
- 39주차: 0928_단3:19-26_신앙의 지조
- 40주차: 1005_요4:27-31_변화의 단계
- 41주차: 1012_요19:38-42_제자의 삶
- 42주차: 1019_행6:1-6_교회 일꾼의 선택
- 43주차: 1026_행9:1-9_회심의 단계
- 44주차: 1102_행10:1-9_인정받는 신앙
- 45주차: 1109_행16:1-5_신앙의 동역자
- 46주차: 1116_행16:11-15_선교의 열매
- 47주차: 1123_행18:1-4_아름다운 부부
- 48주차: 1130_롬4:17-25_믿음의 행위
- 49주차: 1207_고전3:1-9_하나님의 성취
- 50주차: 1214_고후7:5-16_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사람
- 51주차: 1221_갈2:19-21_하나님을 향한 삶
- 52주차: 1228_빌4:4-9_기쁨과 감사와 평강

2013년도 속회 공과 본문과 제목 - 총주제: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⁴

- 01주차: 0104_창7:1-6_새로운 삶의 시작
- 02주차: 0111_창13:1-18_양보하는 마음
- 03주차: 0118_창14:1-16_위기를 대비하는 신앙
- 04주차: 0125_창18:22-23_세상을 위한 중보기도
- 05주차: 0201_창22:1-19_말씀을 따르는 순종
- 06주차: 0208_창26:12-33_평화를 만드는 사람
- 07주차: 0215_창39:7-23_유혹을 이기는 삶
- 08주차: 0222_창41:46-57_신실한 일꾼
- 09주차: 0301_창45:1-15_화해의 아름다움
- 10주차: 0308_출1:15-22_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그리스도인
- 11주차: 0315_출32:30-35_기도하는 리더
- 12주차: 0322_민6:22-27_축복함으로 넉넉해지는 삶
- 13주차: 0329_사53:1-6_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 14주차: 0405_고전15:1-8, 20-22, 55-58_부활이 주는 교훈
- 15주차: 0412_민14:1-10_긍정의 힘
- 16주차: 0419_롬16:1-2_인정받는 일꾼
- 17주차: 0426_마3:1-17_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 18주차: 0503_마18:1-10_어린이를 일꾼으로 키우는 교회
- 19주차: 0510_엡6:1-3_부모를 섬기는 마음

⁴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3속회공과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

- 20주차: 0517_마5:13-16_소금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 21주차: 0524_행9:1-19_회심과 거듭남
- 22주차: 0531_막15:42-47_담대한 그리스도인
- 23주차: 0607_눅18:1-8_낙심과 기도
- 24주차: 0614_눅19:1-10_변화와 결단
- 25주차: 0621_요1:43-51_고정관념의 극복
- 26주차: 0628_수3:5-17_빛이 되는 말씀
- 27주차: 0705_눅17:11-19_맥추감사절의 의미
- 28주차: 0712_수10:1-14_남을 돕는 그리스도인
- 29주차: 0719_수14:6-15_도전하는 그리스도인
- 30주차: 0726_삼상19:1-17_서로 돕는 빛의 자녀
- 31주차: 0802_삼상24:1-22_관용과 용서
- 32주차: 0809_삼상25:1-35_그리스도인의 지혜
- 33주차: 0816_삼상30:16-25_복을 나누는 사람
- 34주차: 0823_삼하24:18-25_자원하여 드리는 삶
- 35주차: 0830_왕상3:4-15_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습관
- 36주차: 0907_왕상17:8-24_헌신하는 삶
- 37주차: 0913_왕하5:1-19_문제를 극복하는 비결
- 38주차: 0920_왕하18:1-8_변화와 회복
- 39주차: 0927_왕하23:21-25_개혁하는 사람
- 40주차: 1004_눅10:25-37_세상의 빛, 이웃 사랑
- 41주차: 1011_행5:1-11_정직한 그리스도인
- 42주차: 1018_행7:54-60_순교자처럼 사는 빛의 자녀

- 43주차: 1025_행8:1-13_세상을 구원하는 전도
- 44주차: 1101_행10:1-8_구제 사역이 주는 기쁨
- 45주차: 1108_행11:19-26_세상을 변화시키는 지도자
- 46주차: 1115_합3:16-18_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감사
- 47주차: 1122_몬1:1-22_동역자로 사는 기쁨
- 48주차: 1129_약2:14-26_말과 실천의 조화
- 49주차: 1206_요일4:7-21_세상이 요구하는 사람
- 50주차: 1213_마2:1-12_살아 있는 믿음
- 51주차: 1220_눅2:8-20_성탄절의 주인공
- 52주차: 1227_요삼1:1-12_본이 되는 사람

2014년도 속회 공과 본문과 제목 - 총주제: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⁵

- 01주차: 0103_사60:1-9_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 02주차: 0110_사42:1-9_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 03주차: 0117_사49:1-7_부름 받은 사명자
- 04주차: 0124_시27:1-6_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 05주차: 0131_사58:1-12_참 신앙을 회복하자
- 06주차: 0207_신30:15-20_생명의 길을 택하라
- 07주차: 0214_레19:9-18_거룩하여 사랑을 행하라
- 08주차: 0221_사49:8-17_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⁵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4교회력에 따른 속회공과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09주차: 0228_출24:12-18_언약의 돌판을 네게 주리라

10주차: 0307_율2:12-17_여호와께 돌아오라

11주차: 0314_창3:1-7_간교한 사탄의 유혹

12주차: 0321_창12:1-9_복의 근원이 되라

13주차: 0328_출17:1-9_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14주차: 0404_삼상16:1-13_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15주차: 0411_겔:1-14_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16주차: 0418_사53:1-12_고난의 종

17주차: 0425_마28:1-10_예수 부활하셨다

18주차: 0502_눅18:15-17_어린아이와 천국

19주차: 0509_엡6:1-3_네 부모를 공경하라

20주차: 0516_요10:1-12_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21주차: 0523_요14:1-14_천국을 바라보는 믿음

22주차: 0530_요14:15-21_계명을 지키라

23주차: 0606_행1:6-11_하늘에 소망을 두라

24주차: 0613_요20:19-23_성령을 받으라

25주차: 0620_마28:16-20_가서 제자 삼으라

26주차: 0627_마10:40-42_협력자에게 주시는 상

27주차: 0704_신16:9-12_맥추절을 지키라

28주차: 0711_마13:1-9_마음 받을 가꾸라

29주차: 0718_마13:24-30, 36-43_알곡과 가라지

30주차: 0725_마13:44-50_천국의 가치

31주차: 0801_마14:13-21_빈 들의 잔치

- 32주차: 0808_마14:22-33_예수님만 바라보라
- 33주차: 0815_엡2:11-18_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
- 34주차: 0822_마16:13-20_올바른 신앙고백
- 35주차: 0829_마16:21-28_자기 십자가를 지고
- 36주차: 0905_롬13:11-14_자다가 께 때
- 37주차: 0912_롬14:1-12_비판하지 마라
- 38주차: 0919_딤후3:15-17_말씀을 배우는 사람
- 39주차: 0926_빌2:1-11_겸손히 섬기는 성도
- 40주차: 1003_빌3:4-16_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 41주차: 1010_빌4:4-9_평강을 얻는 길
- 42주차: 1017_살전1:1-8_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
- 43주차: 1024_살전2:1-8_복음의 열매를 맺는 길
- 44주차: 1031_왕하22:3-13_우리 시대의 종교개혁
- 45주차: 1107_살전4:1-12_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 46주차: 1114_시100:1-5_여호와께 감사하라
- 47주차: 1121_살전5:1-11_재림을 준비하는 올바른 자세
- 48주차: 1128_고전1:4-9_성도의 성숙한 감사
- 49주차: 1205_벧후3:8-13_재림에 대한 확신
- 50주차: 1212_엡3:14-21_성도의 성숙한 기도
- 51주차: 1219_눅1:26-38_말씀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 52주차: 1226_눅2:1-14_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
- 53주차: 1231_살전5:16-18_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삶

참고 문헌

번역서적

- Castellanos, Cesar. *Liderazgo De' exito a Trav' es de los 12*. 서효정 역. *G-12리더십*. 서울: NCD, 2003.
- Foster, John. *새롭게 조명한 초대교회의 역사*. 심창섭, 최은수 역. 서울: 웨스트민스터 출판부, 1998.
- Hall, Terry. *Bible Panorama*. 성경 파노라마. 배웅준 역. 서울: 규장, 2009.
- Hall, Terry. *Bible Express*. 성경 익스프레스. 배웅준 역. 서울: 규장, 2009.
- Icenogle, Gareth Weldon. *Biblical Foundations for Small Group Ministry*. 김선일 역. *소그룹 사역을 위한 성경적 기초*. 서울: SFC출판부, 2007.
- Neighbour, Ralph Jr. *Welcome to Your Life*. 정진우 역. *셀교회지침서: 교회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정진우 역. 서울: NCD, 2001.
- Schwartz, Christian A. *Natural church development*. 윤수인, 정진우, 박동건, 오태균 역. *자연적 교회 성장*. 서울: 도서출판 NCD, 2006.
- Simson, Wolfgang. 황진기 역. *가정교회: 침투적 교회 개척론*. 서울: 제자훈련원, 2004.
- Viola, Frank. *Rethinking the wineskin*. 박은영 역. *1세기 관계적 교회*. 서울: 미션월드, 2006.

한국어서적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0속회공과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 서울: KMC, 2009.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1년 속회공과 역경을 이기는 그리스도인*. 서울: KMC, 2010.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2속회공과 변화와 성장으로 자라가는 그리스도인*. 서울: KMC, 2011.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3속회공과 소금과 빛이 되는 그리스도인*. 서울: KMC, 2012.

-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 *2014교회력에 따른 속회공과 말씀으로 만나주시는 하나님*. 서울: KMC, 2013.
- 김철한. *교회 속장 세우기*. 서울: KMC, 2010.
- 김흥기. *감리교회사-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웨슬리에서 아펜젤러까지(1725-1885)*. 서울: KMC, 2013.
- 류모세. *역사 드라마로 읽는 성경1*. 서울: 두란노서원, 2013.
- 문봉주. *성경의 맥을 잡아라*. 서울: 두란노서원, 2007.
- 바이블 칼리지. *성경탐구 40일*. 서울: 두란노서원, 2009.
- 박용호. *존 웨슬리의 속회론*. 서울: KMC, 2010.
- 박홍래. *셀그룹 셀교회*. 서울: 서로사랑, 2003.
- 송삼용. *구역장 불꽃처럼 일어나라*. 서울: 브니엘출판사, 2003.
- 옥한흠.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87.
- 옥한흠. *제자훈련 열정30년 그 뒤편길의 이야기*. 서울: 두란노, 1998.
- 옥한흠. *다시 쓰는 평신도를 깨운다*. 서울: 두란노, 1999.
- 유동식. *정동제일교회의 역사 1885-1990*.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정동제일교회, 1992.
- 유동식. *한국감리교회의 역사 I 1884-1992*. 서울: KMC, 2013.
- 이덕주. *한국교회 처음이야기*. 서울: 흥성사, 2006.
- 이상화, 채이석. *건강한 소그룹 사역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3.
- 이성희. *미래목회대예언*. 서울: 규장문화사, 1998.
- 이에실. *어? 성경이 읽어지네!*. 서울: 두란노서원, 2007.
- 장정편찬위원회. *교리와 장정*. 서울: 기독교대한감리회 본부 감독회, 2012.
- 정재영. *교회 안 나가는 그리스도인 성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서울: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 2015.

- 조병호. *성경통독과 통신학*.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성경과 5대제국*. 서울: 통독원, 2016.
- 조병호. *역사순 48시간 성경통독 가이드북*. 서울: 통독원, 2013.
- 조병호. *통성경 길라잡이*. 서울: 통독원, 2012.
- 조병호. *통이다 렛츠 통*. 서울: 통독원, 2009.
- 조용기. *희망목회 45년, 구역 소그룹 부흥 이야기*. 서울: 교회성장연구소, 2004.
- 채이석. *소그룹의 역사*. 서울: 소그룹하우스, 2010.
- 최정성. *구역관리와 교회성장*. 서울: 엘멘, 1999.

논문, 잡지

-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그래프로 보는 감리교인은 누구인가? ②.” 1002, *기독교 세계*, 2014, 8.
-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그래프로 보는 감리교인은 누구인가? ③.” 1004, *기독교 세계*, 2014, 8.
- 기독교대한감리회 출판국. “그래프로 보는 감리교인은 누구인가? ⑦.” 1010, *기독교 세계*, 2015, 11.
- 김영래. “내러포와 기독교교육: 성경교수방법으로서의 내러포 탐구.” 84, *신학과 세계*, 2015, 526-554.
- 김한옥. “한국교회 소그룹 목회의 실태와 발전 방안.” 12, *신학과 실천*, 2007, 9-37.
- 문기철. “소그룹 목회 비교연구를 통한 현대교회 성장에 관한 연구.” 신학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2.
- 조홍래. “한국교회 구역운영의 실증적 분석을 통한 교회성장 방안 연구.” 신학박사 학위 논문, 총신목회전문대학원, 2007.
- 최선화. “한국교회의 평신도 제자훈련의 역사 고찰과 전망”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2005.

V I T A

PERSONAL DATA

Full Name: Dongku Ka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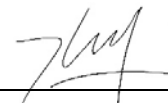
Place and Date of Birth: Daejeon, South Korea, Jan.23, 1975

Parent`s Names: Insil Son

EDUCATIONAL INSTITUTIONS

<u>School (Name and Address)</u>	<u>Degree</u>	<u>Date</u>
Secondary: Daecheon High School 58, Daego-ro, Boryeong-si, Chungcheongnam-do, South Korea	Diploma	Feb. 10, 1993
Collegiate: Mokwon University College of Theology 88, Doanbuk-ro, Seo-gu, Daejeon, Korea	B.A	Mar. 2, 1993
Graduate: Mokw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Theology 88, Doanbuk-ro, Seo-gu, Daejeon, Korea	TH.M	Aug. 10, 2003

I understand that the Drew University Library may make this document available to scholars and other Libraries.



Signature

Dongku Kang

Name typed

May 6, 2016

Date